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 생애주기별 접근 -

2005. 12

연구책임자 :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OECD,
일본 인구및사회보장연구소, Rand Europe,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II. 선행연구 검토	9
1. 성 형평성과 출산력	11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15
III.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21
IV. 한국사회의 가족내 젠더구조	33
1. 조사대상자 특성	35
2. 부부의 성 형평성: 시간 배분 실태를 중심으로	43
가. 유급노동	43
나. 무급노동	45
다. 여가	49
라. 총노동시간	51
V. 성 형평성과 출산력	55
1. 표본의 특성	57
2. 둘째 출산 의향 분석 결과	60
VI. 결론	73
참고문헌	77

표 목 차

<표 III-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동향, 1970~2003	23
<표 III-2> OECD 일부국가의 출산율 동향(국가 발표치 기준)	25
<표 III-3> 연도별 평균초혼연령	26
<표 III-4> 연도별 이혼율	29
<표 III-5> 연령별 여성 혼인건수 및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	30
<표 IV-1>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	36
<표 IV-2>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	37
<표 IV-3> 가족주기별 집단 분포	38
<표 IV-4> 가족주기별 여성의 연령 분포	39
<표 IV-5> 가족주기별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41
<표 IV-6> 가족주기별 여성의 고용형태 분포	42
<표 IV-7> 부부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	45
<표 IV-8>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46
<표 IV-9>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세부 항목	48
<표 IV-10> 부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50
<표 IV-11> 부부의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52
<표 V-1> 한 자녀를 둔 여성의 특성	58
<표 V-1> 계 속	59
<표 V-2>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전체 -	62
<표 V-3>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취업여성 -	65
<표 V-4>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전업주부 -	67
<표 V-5> 성별, 연령별, 취업여부별 결혼계획 없는 이유	72

그림 목 차

<그림 II-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13
<그림 II-2>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율	17
<그림 III-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동향, 1970~2003	24
<그림 III-2> 연령별 여성 미혼인구 비율	26
<그림 III-3> 연도별 평균초혼연령	27
<그림 III-4> 청년층 실업률	28
<그림 III-5> 연도별 이혼건수 및 이혼율	29
<그림 III-6> 연령별 여성 혼인건수	31
<그림 III-7>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31
<그림 IV-1>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	36
<그림 IV-2>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	37
<그림 IV-3> 가족주기별 집단 분포	38
<그림 IV-4> 가족주기별 여성의 연령 분포	40
<그림 IV-5> 가족주기별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41
<그림 IV-6> 가족주기별 여성의 고용형태 분포	43
<그림 IV-7> 부부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	45
<그림 IV-8>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47
<그림 IV-9>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세부 항목	49
<그림 IV-10> 부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51
<그림 IV-11> 부부의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52
<그림 V-1> 성별, 취업여부에 따른 결혼계획여부	71

I

서론

- | | |
|---------------|---|
| 1. 문제제기 | 3 |
|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6 |

1. 문제제기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므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불과 18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이다¹⁾.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평균 수명 상승으로 인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출산력 수준의 하락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 대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이래 1.2명 수준을 밑도는 극저출산 사회(lowest low fertility society)에서 탈출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결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크게 두 국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언급하겠다.

첫째, 결혼 이행 이전의 단계로서 결혼을 감소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결혼관계내에서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율의 감소 혹은 결혼연령의 상승은 곧바로 출산율 하락과 연결된다. 결혼율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문제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

1)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하고 고령 사회는 그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4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으로 결혼을 감소 추세는 장기화된 경제 불황, 이 가운데에서 특히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한 결혼 연기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요즘 젊은 세대에선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청년 실업문제는 여성에게도 결혼 연기를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성에게 '일'이 지니는 의미는 배우자의 역할 기대 변화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및 2차 인구학적 변천으로 일컬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결혼 이후 가족관계내에서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소자녀 가치관이 정착된 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 양육을 쉽게 고비용과 연관시키게 되고, 그에 따른 가계수입 증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흡하여 개별 가족,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돌봄노동(care work)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제도가 미발달된 곳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 가족생활이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과부하되지 않고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성이 사라지며 양성평등한 형태로 정착될 때 이미 결혼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결혼은 매력적인 생애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오늘날의 저출산 현상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및 양성화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Folbre(1997)의 진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재생산 노동 혹은 돌봄의 역할은 돌보는 자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남성은 여성이, 부모가 아닌 자는 부모가, 고용주는 노동자가, 국가는 개인이 돌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는 바로 돌봄의 역할과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 저출산 현상이다(이재경외, 2005).

이 글은 이 가운데에서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못지않게 가족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돌봄노동은 사회가 개인과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즉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사회의 극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가족내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들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을 매개로 하여 우리 사회 맞벌이 가족내에서 가사분담을 둘러싼 성 형평성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바라는 결혼과 가족, 일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고, 이것과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한국사회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부부의 시간 사용을 통하여 성 형평성 정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와 출산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혹은 한국사회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의 “2003년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2차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의 정도를 탐색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시간 사용이 얼마나 젠더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은 크게 ‘일’, ‘가족’, ‘여가’로 대별된다. 이 세 영역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면서 생애주기를 통해 변화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가족주기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가족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가족으로 만난 남녀의 일상생활은 서로간의 역학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이 연구는 이렇게 미시적인 수준에서 남녀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봄으로써, 이것이 거시적인 사회 현상, 예를 들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출산 계획’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첫째 출산 이후 아직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한국사회 극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과 이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집단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저출산 원인 규명의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와 2차 자료 활용이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분석되었다. 가족주기별로 유형화된 맞벌이 부부를 분석 대상으로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 ‘총노동시간’의 평균 비교가 이뤄졌다.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의향에 대한 요인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둘째 추가 출산 계획’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행연구

8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검토 결과 채택된 독립변수를 연구 모형에 포함시켜 로짓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 결과 해석을 뒷받침하는 데 한국여성개발원의 “2003년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 | | |
|-------------------------|----|
| 1. 성 형평성과 출산력 | 11 |
|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 15 |

1. 성 형평성과 출산력

UN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저출산(low fertility)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gender equity)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McDonald(2000)는 출산을 감소 이론에서 젠더 형평성의 역할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과 가구/가족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와 제도적 평등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을 제한하며, 따라서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Künzler, 2002).

다시 말해서, McDonald(2000)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지향적 제도로는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지향적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내 성별분업이 있다. 즉, 성평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개인지향적제도는 평등한 반면, 가족지향적제도는 불평등한 데서 나오는 차이를 의미한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

고,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극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곳은 바로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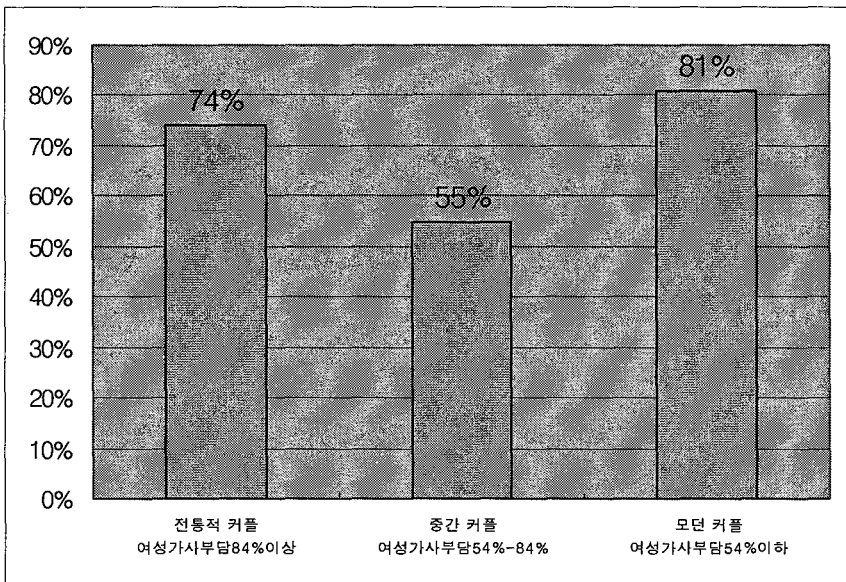
호크쉴드(Hochschild, 1989)와 같은 가족사회학자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즉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남성들이 집안에서 가사일을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추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제안한 개별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제도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 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둘 다 여성의 '이중 부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린드퍼스 등(Rindfuss, Brewster & Kavee, 1996)은 노동시장 참여와 아동 양육에서의 여성 역할이 갈등 관계에 놓일수록, 즉 이 두 역할의 불일치가 강할수록 출산을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Brewster & Rindfuss, 2000; Morgan, 2003; Lehrer & Nerlove, 1986)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가구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지원이라 함은 모성보호정책, 정부의 지원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변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출산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성(父性)적·사회적 개입의 결여 때문"이라는 폴브(Folbre, 1997)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쉐내(Chesnais, 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젠더 관계를 함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 뿐 아니라 성평등한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고 젠더가 개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경우는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그림 II-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자료: Torr & Short, 2004, 재구성(이재경, 2005에서 재인용)

토어와 쇼트(Torr & Short, 2004)는 웨네(1996)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아 출산과 가구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서,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가사분담율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가사분담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가구도 가사분담율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구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그림 II-1> 참조)²⁾. 토어와 쇼트(2004)의 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가사분담의 정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87-1988년 1차 조사에 이어 5년 후인 1992-1994년에 2차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토어와 쇼트는 맞벌이 가구를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 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는데, 둘째 아이의 출산은 모던 커플이 81%로 가장 높았다.

퀸즐러(Künzler,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가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과 출산력 수준을 비교한 McDonald(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제도적 수준의 성평등이 가족내 성평등 수준으로 전화되지 못한 경우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0년간 증가해 왔다. OECD와 BLS 자료에 따르면 1960~2000년 사이 미국, 스웨덴, 영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 증가했다(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rewster and Rindfuss 2000;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000; Klerman and Leibowitz 1999).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 증가했다(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LS 2003).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 이상이 공식노동부문에 종사하였다. 1975년에는 이 비율이 37%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Klerman and Leibowitz 1999).

인구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일수록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이 출산을 줄였다고 결론지었다(Angrist and Evans 1998; Cramer 1980).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사례는 출산과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Lloyd 1991; Mason and Palan 1981). 따라서 서구 사회 이외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간활용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DeGraff and Anker 1999; Donahoe 1999; Lloyd 1991; Van Esterik and Greiner 1981).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들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과

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이 고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변수가 상이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맥도널드나 쉐내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동일한 성형평성 수준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출산력 상태를 보인다는 국제 비교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 가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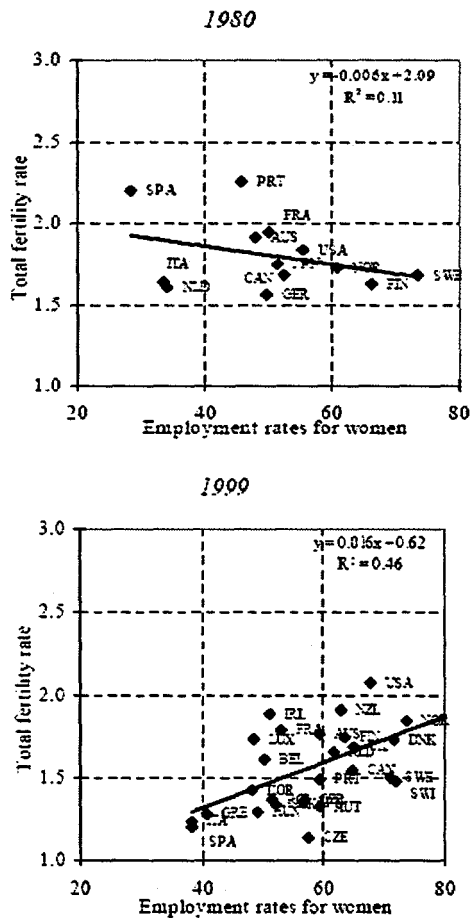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전 사회의 출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출산조절 기술 등 출산 행위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사회문화적 조건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또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이재경, 2005).

한국의 경우 1960년 합계출산율은 6.0(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였으나,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진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거나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그림 II-2>

참조) 1980년에는 여성고용율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9년 그래프에서는 반대로 여성고용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그래프에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R^2=0.46$ 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2>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자료: Sleetbos(2003), p. 20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시작점에서 출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는 출산 안정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출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출산율 미루게 되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국가들의 공통된 출산 연기 결정요인은 초기 성숙기의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을 미루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에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부유럽의 경우를 보자. 남부 유럽국가들은 소득수준은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에 비해 이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남부유럽에서의 만성적인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왔다. 남부유럽 국가에서 불확실성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개인 수준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국가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 연기 및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견된다. 최경수(2003)는 200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 출산 감소와 저출산 지속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로 보고 있다. 소득이나 커리어 전망이 감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 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Sleeboos, 2003).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은 북유럽이나 영미계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나, 청년층 취업률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는 위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청년층 실업 증가,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 연기(birth postponement) 현상 발생에는 공통되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부유럽 저출산 국가의 경우(이탈리아나 스페인),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동 시장 또한 시간제 근무수요나 출산휴가 후의 복직 등과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세금 수당이나 직접적인 지원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부족분이 부분적으로 강한 가족적 연대로서 보충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보육 등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공 지원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은 현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자체 한계로 작용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가족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뒤처짐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가사노동 분배에서도 성 형평성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나라의 사례는 성 형평성에 대한 맥도날드의 관찰 내용에 부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관찰 내용인즉, 매우 낮은 출산율은 노동 시장과 같은 개인지향적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지향제도 내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의 결합에서 결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 사회보다 높다. 즉 서구 사회에서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 사회 여성은 아직도 일과 자녀 양육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출산율 모두 서구 사회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III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이루어진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의 증가,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60년에 무려 6.0명 수준에 이르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³⁾)이 1970년에는 4.53명으로 낮아진데 이어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08명까지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꾸준히 지속되어 1990년대 후반인 1998년엔 1.47명까지 떨어졌으며 2003년 현재 1.19명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I-1>, <그림 III-1>)

<표 III-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동향, 1970~2003

(단위: 명, 천명)

연도	1960	1970	1980	1983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합계출산율 (명)	6.00	4.53	2.83	2.08	1.59	1.65	1.47	1.30	1.17	1.19
출생아수 (천명)	1,041	1,007	865	778	656	721	637	551	495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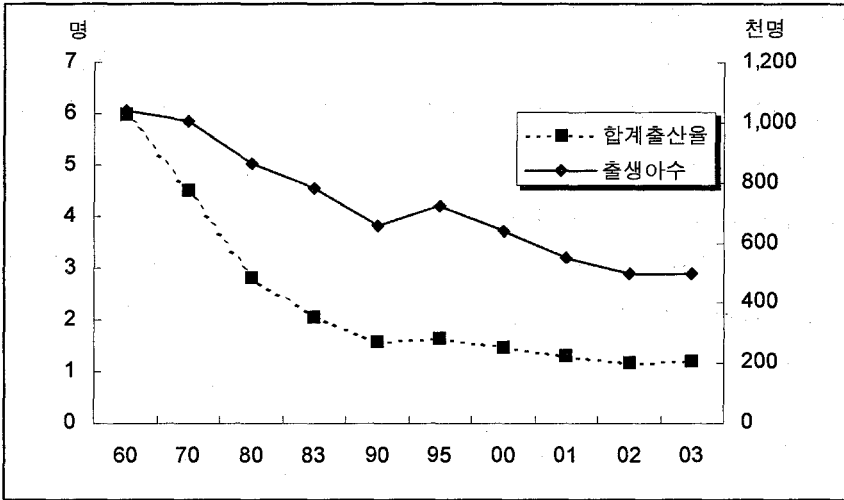
자료 : 1) 1960년 자료는 공세권 외(1992:2034).

2)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3)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4)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III-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동향, 1970~2003



자료 : 1) 1960년 자료는 공세권 외(1992:2035).

2)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출생아수 역시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104만 명의 출생아수를 보이던 196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만 명의 신생아들만이 탄생했을 뿐이다.

1.2명을 밑도는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은 현재 극저출산 (lowest-low fertility) 국가 수준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

5)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2> OECD 일부국가의 출산율 동향(국가 발표치 기준)

(단위: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평균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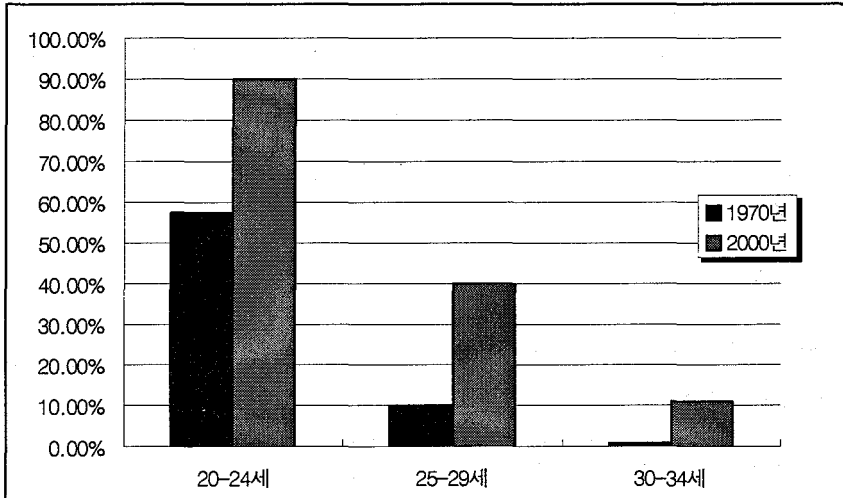
구분	1990	1998	2000	2001	2002	2003
일 본	1.54	1.34('99)	1.36	1.33	1.32	1.29
독 일	1.45	1.34	1.34	1.35	1.40	
스웨덴	2.13	1.51	1.54	1.57	1.65	
프랑스	1.78	1.75	1.89	1.89	1.88	
스페인	1.36	1.15	1.22	1.24	1.25	
이태리				1.25	1.26	
영 국			1.64	1.65	1.73	
미 국				2.03	2.01	
호 주				1.73	1.75	
한 국	1.59	1.47	1.47	1.30	1.17	1.19

자료: NCH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52., Eurostat 'First results of the demographic data collection for 2002(2001) in Europe', series FM1 no. 31 'Birth statistics', '3301.0 2002 Births'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주로 결혼과 같은 제도로 가족이 형성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의 구성, 유지, 변동 등이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에 대한 고려는 결혼과 가족의 형성이나 이들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와 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그림 III-2>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면서 1970년에는 20-24세 여성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던 미혼인구가 2000년에는 90% 가까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연령별 여성 미혼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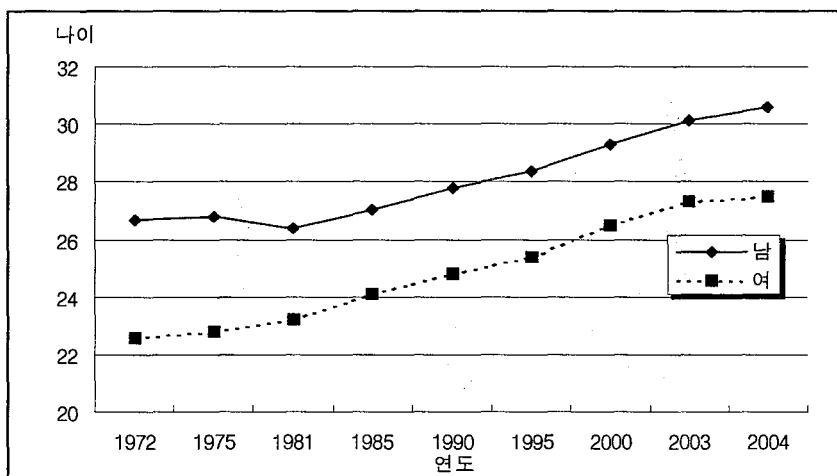
<표 III-3> 연도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1972	1975	1981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남	26.7	26.8	26.4	27.0	27.8	28.4	29.3	30.1	30.6
여	22.6	22.8	23.2	24.1	24.8	25.4	26.5	27.3	27.5

자료: 통계청, 2005, '1970년 이후 혼인 이혼 주요특성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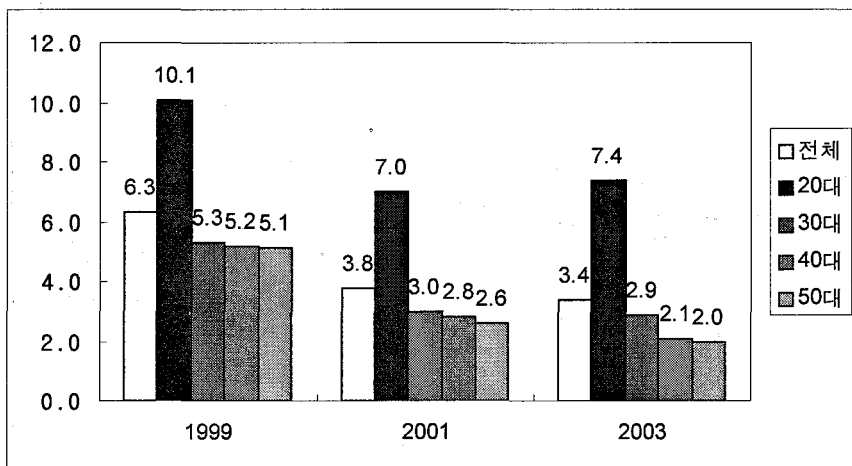
<그림 Ⅲ-3> 연도별 평균초혼연령



자료: 통계청, 2005, '1970년 이후 혼인 이혼 주요특성 변동 추이'

평균초혼연령 역시 남성의 경우 1975년 26.8세에서 2003년 30.1세로, 여성의 경우 1975년 22.8세에서 2003년 27.3세로 크게 늦춰졌다(표 Ⅲ-3, 그림 Ⅲ-5). 평균초혼연령이 늦어졌다는 것은 출산연령 또한 늦춰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절한 가임연령 기간 동안 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의 숫자가 감소함으로써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1997년 발생한 IMF 경제 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정을 형성하는 데 부담을 느껴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4> 청년층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pp, 147-152.

<그림 III-4>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2003년 실업률은 3.4%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2%대를 유지한 반면, 30대의 청년층 실업률은 7.4%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높은 청년층 실업률은 결혼 결정을 미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혼가정의 급격한 증가(<표 III-4>, <그림 III-5>) 역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에는 1만2천 건, 1980년에는 2만4천 건 정도이던 이혼이 2003년에 16만7천 건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Ⅲ-4> 연도별 이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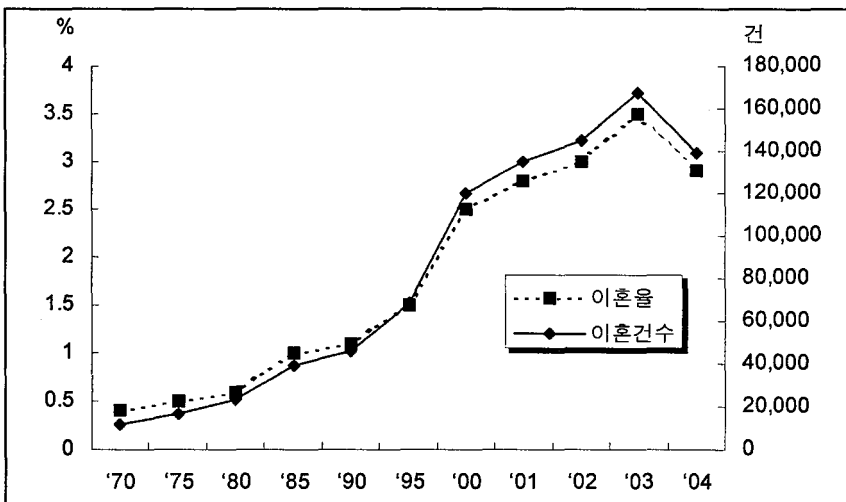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70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율(%)	0.4	0.5	0.6	1.0	1.1	1.5	2.5	2.8	3.0	3.5	2.9
건수	11,615	16,453	23,662	38,838	45,694	68,279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자료: 통계청, 2005, '1970년 이후 혼인 이혼 주요특성 변동 추이'

<그림 Ⅲ-5> 연도별 이혼건수 및 이혼율

(단위: 건)



자료: 통계청, 2005, '1970년 이후 혼인 이혼 주요특성 변동 추이'

그렇다면 한국의 혼인 건수 현황은 어떠할까? <표 Ⅲ-5>와 <그림 Ⅲ-6>, <그림 Ⅲ-7>은 연령별 여성의 혼인 건수와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미혼율의 증가 현상에서

집착할 수 있듯이 한국의 혼인 건수는 절대 규모에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초혼 연령 상승 및 미혼 기간의 연장을 결과한다. 이와 같은 결혼 연기 현상이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만 이어질지, 아니면 생애과정상에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기 자체가 생략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초혼 연령 상승을 초래하고 초혼 연령 상승은 초산 연령을 상승시킴으로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분포도 변화한다. 1999년에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여성의 연령 집단은 25세-27세였던 데에 비해, 2003년에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여성의 연령 집단은 30세-34세이다. 여성의 가임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산 연령의 상승은 곧바로 출산력 수준의 감소로 연결된다. 특히 결혼 관계 내에서의 출산만 인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혼인 건수의 감소, 초산 연령의 상승은 사회 전체의 출산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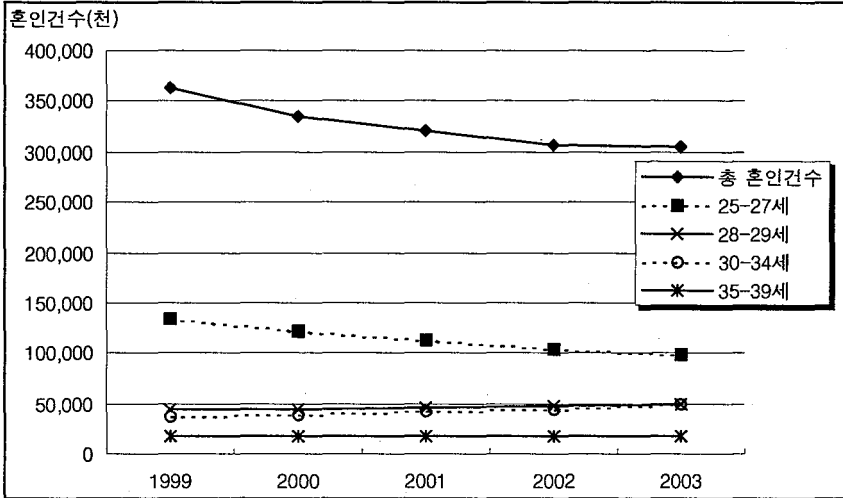
<표 III-5> 연령별 여성 혼인건수 및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단위: 천건, 천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혼인건수	362,673	334,030	320,063	306,573	304,932
25-27세	133,127	120,847	112,456	103,661	99,362
28-29세	44,902	44,040	45,673	47,688	49,131
30-34세	36,928	38,294	41,655	44,525	48,702
35-39세	18,206	16,924	17,687	17,110	17,902
총 출생아수	616,322	636,780	557,228	494,625	493,471
25-27세	190,137	179,204	144,777	114,307	106,146
28-29세	141,285	149,909	129,371	112,865	113,786
30-34세	156,751	183,930	174,718	170,489	180,190
35-39세	33,556	37,203	35,683	34,265	36,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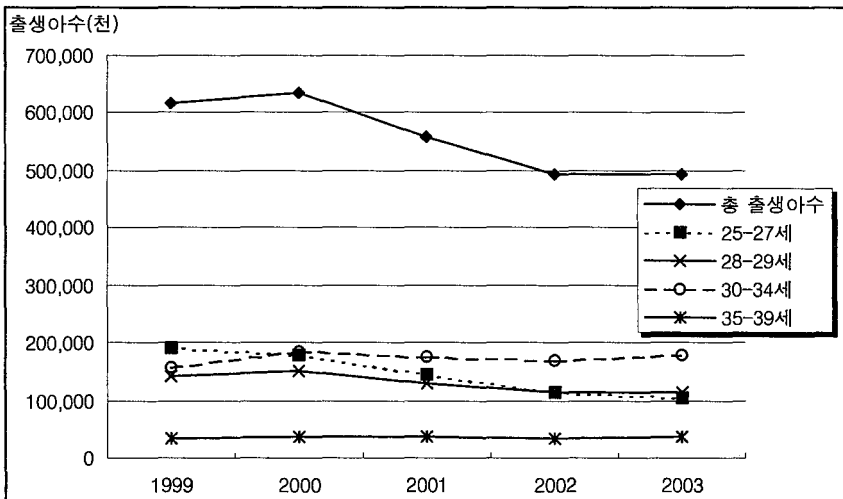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3년 출생 및 사망 통계(보도자료)', 2004. 8

<그림 III-6> 연령별 여성 혼인건수



자료: 통계청, '2003년 출생 및 사망 통계(보도자료)', 2004. 8

<그림 III-7>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자료: 통계청, '2003년 출생 및 사망 통계(보도자료)', 2004. 8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며 이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인구학적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급격한 고령화 및 사회부양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사망률 저하속도에 비해 출산율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른 탓에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TFR=2.1$) 이하인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낮은 수준에서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의 노년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한국사회의 가족내 젠더구조

- 1. 조사대상자 특성 35
- 2. 부부의 성 형평성:
시간 배분 실태를 중심으로 43

1. 조사대상자 특성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 대상자 가운데에서 가족 내 부부간 형평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맞벌이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부부의 무급노동과 유급노동 시간 배분을 좀더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20대-40대 연령층' 및 '여성의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이들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은 맞벌이 부부가 동거하는 3,668가구이다.

분석대상 가운데 여성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51.7%인 1,898명이 임금노동자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전체의 26.6%인 1,014명이다. 그밖에 자영업자가 17.8%인 653명, 고용주가 2.8%인 103명이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여성들의 고용형태별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이들이 매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고용주 집단으로 주당 평균 6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주당 평균 65시간, 무급가족종사자가 주당 평균 61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노동자가 가장 짧은 주당 평균 53.5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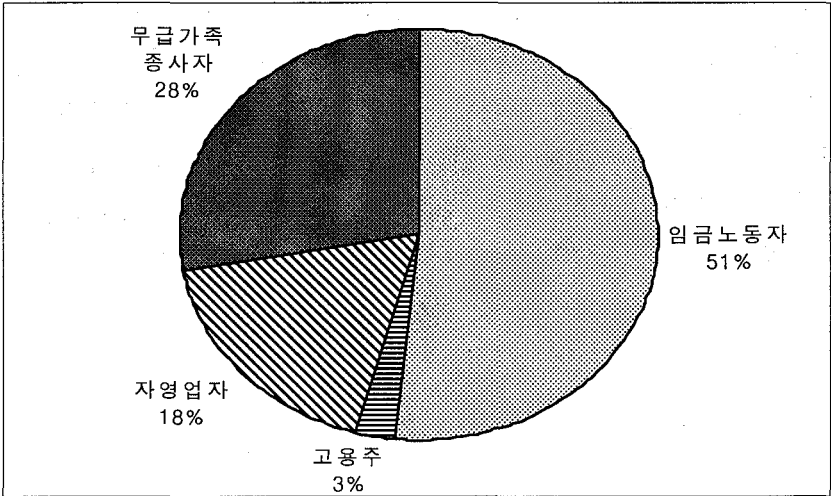
6) 생활시간조사자료는 이틀 동안 10분 단위로 시간사용 행동을 기록한 자기 기록식 일지이다. 따라서 일터와 가정의 구분이 모호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고용주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과잉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1>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

(단위: 명,%)

고용형태	도수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임금노동자	1898	51.74	1898	51.74
고용주	103	2.81	2001	54.55
자영업자	653	17.80	2654	72.36
무급가족종사자	1014	27.64	3668	100.00

<그림 IV-1>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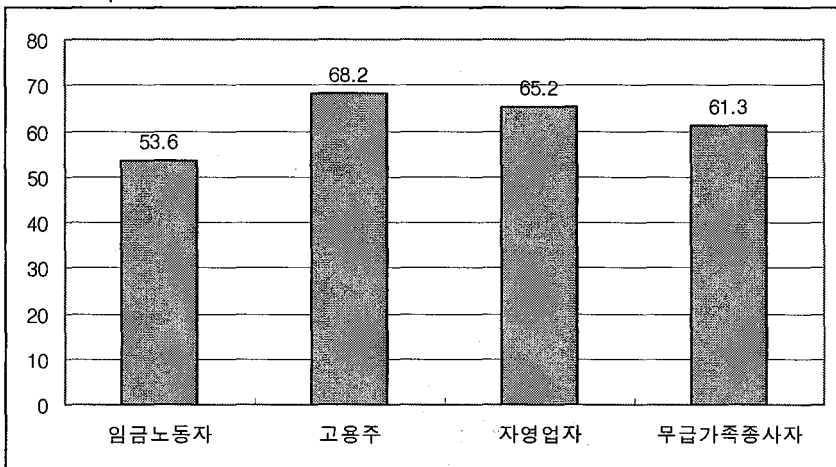


<표 IV-2>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고용형태	관측치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금노동자	1898	1898	53.6	12.7	35.0	119.0
고용주	103	103	68.2	17.9	35.0	119.0
자영업자	653	653	65.2	17.8	35.0	119.0
무급가족종사자	1014	1014	61.3	17.4	35.0	119.0

<그림 IV-2> 조사대상 여성의 고용형태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



생애주기에 따라 부부간 성 형평성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 가구를 '가족 규모'와 '가족주기'를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자녀가 없는 가구로서, 자녀를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와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연령을 30대로 한정하여 출산 전의 가족 형성기 집단만을 포함시켰다. 이 집단에는 20대 부부와 30대 부부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의

6.06%인 206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집단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주로 30대 부부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의 26.38%인 897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집단은 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주로 40대 부부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의 67.56%인 2,297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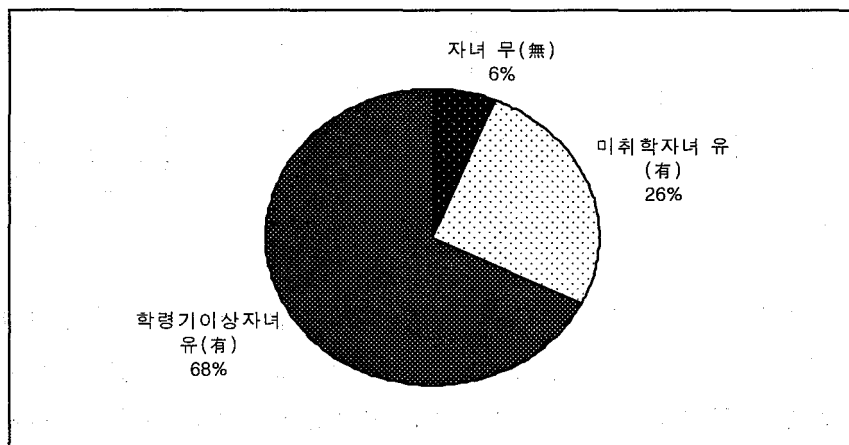
<표 IV-3> 가족주기별 집단 분포

(단위: 가구, %)

가족주기	도수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자녀 무(無)	206	6.06	206	6.06
미취학자녀 유(有)	897	26.38	1103	32.44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297	67.56	3400	100.00

<그림 IV-3> 가족주기별 집단 분포

(단위: 가구, %)



<표 IV-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애주기에 따라 집단을 나눈 것이

프로 각 집단의 연령별 구성 역시 이 흐름을 따른다. 자녀가 없는 1집단의 70%가 20대 여성이며, 학령기 전기 자녀를 둔 2집단의 70%는 30대 여성이고 학령기 이상 자녀를 둔 3집단은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43.8%, 46.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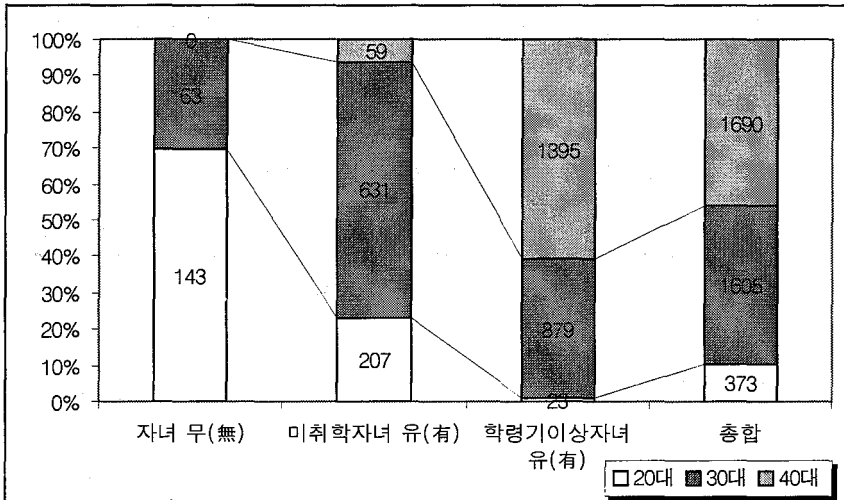
<표 IV-4> 가족주기별 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령	20대	30대	40대
자녀 무(無)	143 69.42	63 30.58	0 0.00
미취학자녀 유(有)	207 23.08	631 70.35	59 6.58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3 1.00	879 38.27	1395 60.73
총합	373 10.17	1605 43.76	1690 46.07

<그림 IV-4> 가족주기별 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표 IV-5>에 나와 있듯이, 세 집단 여성의 학력 분포는 연령 구성과 궤를 같이 한다. 자녀가 없는 1집단 여성의 51.9%가 고졸 학력자로 43.7%인 대졸이상 학력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학령전기 자녀를 둔 2집단 여성 가운데 고졸 학력자는 60.7%이며 대졸이상 학력자는 25.9%이다. 학령기 이상 자녀를 둔 3집단 여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졸 학력자로 전체의 52.2%가 이에 해당하며 고졸 학력자는 39.3%, 대졸 이상 학력자는 7.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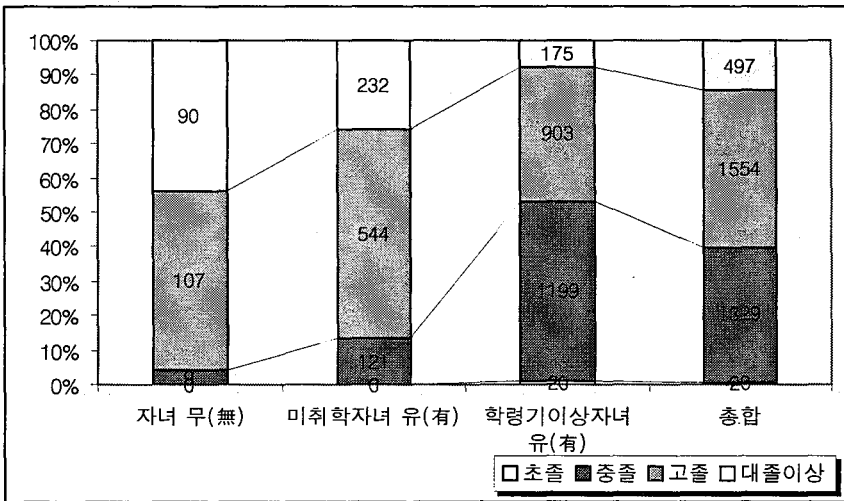
<표 IV-5> 가족주기별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명, %)

교육수준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자녀 무(無)	0 0.00	9 4.37	107 51.94	90 43.69
미취학자녀 유(有)	0 0.00	121 13.49	544 60.65	232 25.86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0 0.87	1199 52.20	903 39.31	175 7.62
총합	20 0.59	1329 39.09	1554 45.71	497 14.62

<그림 IV-5> 가족주기별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명)



<표 IV-6>에서 볼 수 있듯이, 생애주기별 세 집단 여성의 고용형태도 연령 및 학력 분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전체적으로 각 집단 가운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 형태는 임금노동자이다. 그러나 그 분포는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1집단 여성의 79.6%가 임금노동자인 데 비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2집단 여성의 임금노동자 비율은 54.4%로 감소하고 그 대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학령기 이상 자녀를 둔 3집단 여성의 경우에는 2집단 여성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조금씩 더 높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들 가운데 고용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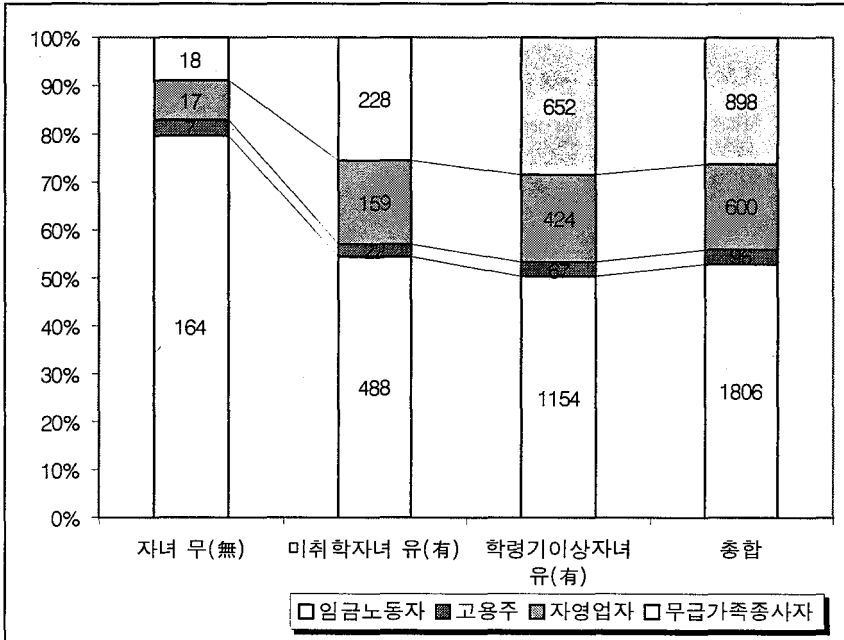
<표 IV-6> 가족주기별 여성의 고용형태 분포

(단위: 명, %)

빈도 행 백분율	임금노동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녀 무(無)	164 79.61	7 3.40	17 8.25	18 8.74
미취학자녀 유(有)	488 54.40	22 2.45	159 17.73	228 25.42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1154 50.24	67 2.92	424 18.46	652 28.38
총합	1806 53.12	96 2.82	600 17.65	898 26.41

<그림 IV-6> 가족주기별 여성의 고용형태 분포

(단위: 명)



2. 부부의 성형평성: 시간 배분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의 부부간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 시간 배분 결과를 보면 시간 사용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의 성 형평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유급노동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유급노

동시간이 남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길다. 분석 대상 남성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76.3분이고 여성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87.3분이다. 이것을 가족주기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1집단의 경우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22.8분 더 길고, 미취학 자녀가 없는 3집단의 경우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26분 더 길다. 미취학 아동이 있어서 여성의 시간 긴장을 최대화시키는 2집단의 경우만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51.8분 짧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확대기에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을 늘리며 남성은 유급노동시간을 더 늘림으로써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신고정경제학의 논의와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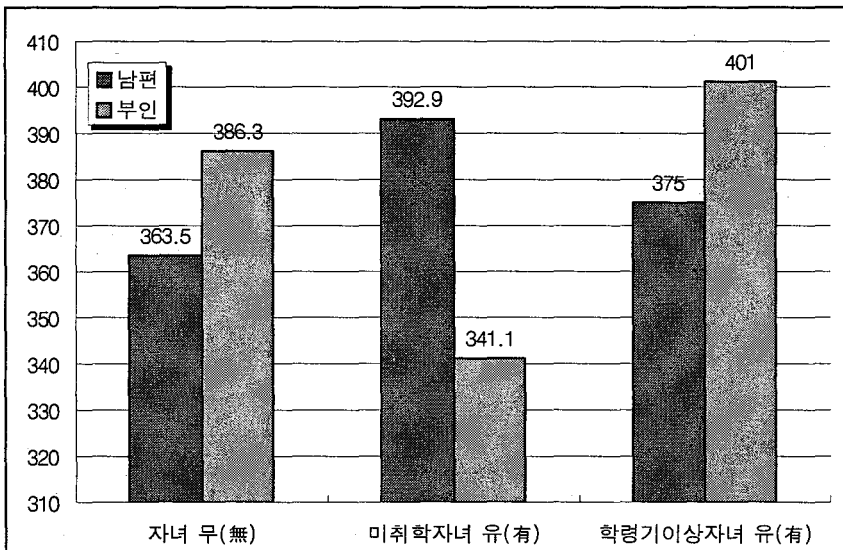
<표 IV-7> 부부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06	남편	206	363.5	266.2	0	890.0
		부인	206	386.3	213.7	0	830.0
미취학자녀 유(有)	897	남편	897	392.9	251.8	0	1040.0
		부인	897	341.1	206.6	0	104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297	남편	2297	375.0	255.8	0	1010.0
		부인	2297	401.0	208.9	0	1020.0

<그림 IV-7> 부부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

(단위: 분)



나. 무급노동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간 유급노동시간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때, 이들의 무급노동 시간사용 결과는 매우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예상대로 가족관련 활동이 극대화되는 2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남녀 모두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그 증가량은 성에 따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자녀가 없거나 어느 정도 자란 가정의 경우, 남성들은 하루 평균 23.2~23.4분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율이 조금 증가하는데 그 차이는 17분이 채 되지 못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다가 미취학자녀가 생긴 경우에 그 여성의 가사활동 시간은 124분 이상 증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무급노동시간은 분석 대상 전체의 평균이고 실제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성 불평등 시간배분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남성의 경우 실제로 무급노동을 하는 사람은 1,517명으로 전체의 41.3%에 불과하다. 나머지 58.7%는 전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2집단에서 남성 행위자 비율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이다.

결국 가족주기에 따른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율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내 성 형평성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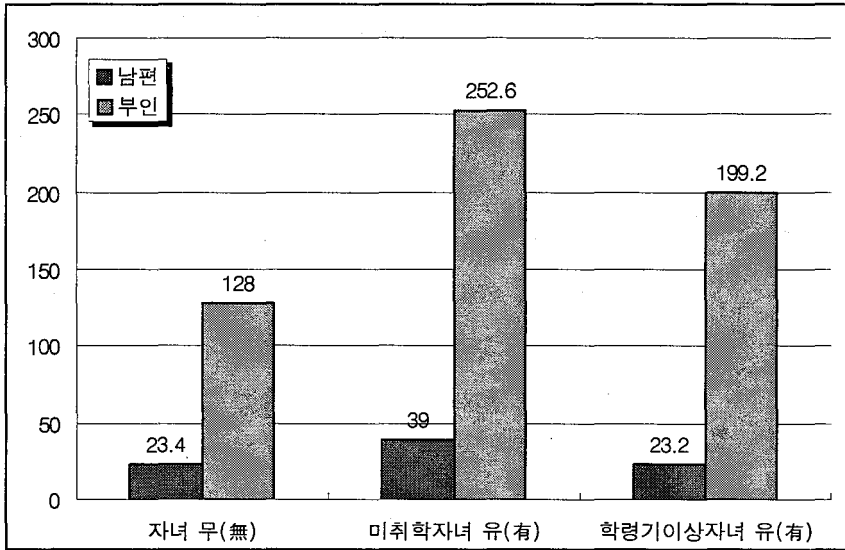
<표 IV-8>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06	남편	206	23.4	48.4	0	290.0
		부인	206	128.0	101.4	0	660.0
미취학자녀 유(有)	897	남편	897	39.0	72.1	0	720.0
		부인	897	252.6	138.2	0	840.0
학령기이상 자녀 유(有)	2297	남편	2297	23.2	53.5	0	550.0
		부인	2297	199.2	113.1	0	720.0

<그림 IV-8>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단위: 분)



다음은 무급노동시간을 좀더 세분하여 가족주기별로 부부간 참여율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 내용을 보면, 미취학아동이 있는 2집단에서 '가족 보살핌 노동' 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20분 가량 증가한 것이 변화의 대부분이다. 여성들은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 보살핌 노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상대적으로 '집안일'에 투여하는 노동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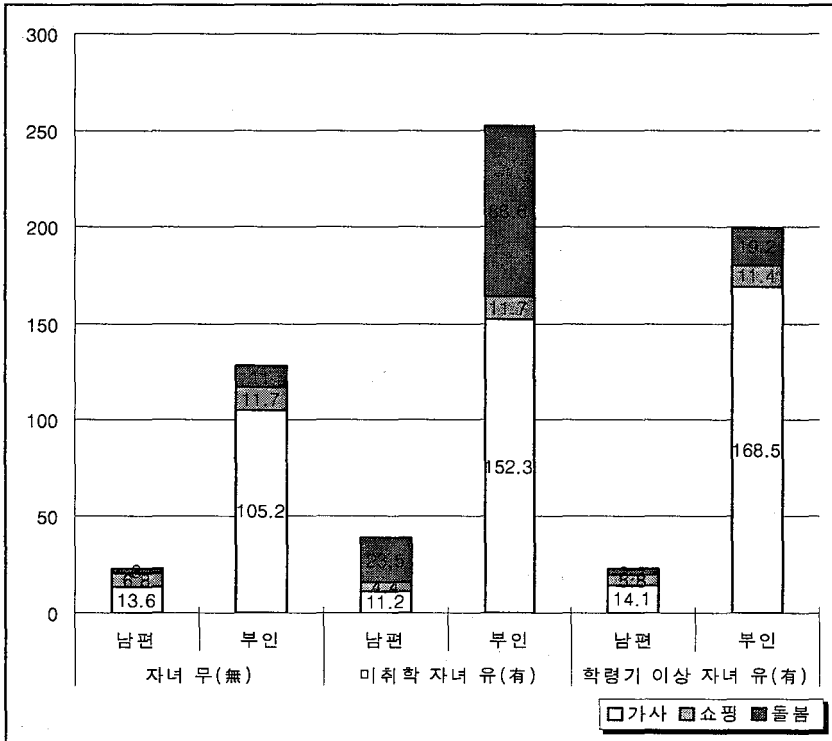
<표 IV-9>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세부 항목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06	남편가사	206	13.6	31.8	0	250.0
		남편쇼핑	206	6.8	22.9	0	170.0
		남편돌봄	206	3.0	16.6	0	180.0
		부인가사	206	105.2	79.8	0	430.0
		부인쇼핑	206	11.7	24.3	0	160.0
		부인돌봄	206	11.0	40.2	0	440.0
미취학 자녀 유(有)	897	남편가사	897	11.2	35.2	0	640.0
		남편쇼핑	897	4.4	20.9	0	280.0
		남편돌봄	897	23.5	51.3	0	490.0
		부인가사	897	152.3	96.5	0	720.0
		부인쇼핑	897	11.7	21.6	0	190.0
		부인돌봄	897	88.6	77.9	0	720.0
학령기 이상 자녀 유(有)	2297	남편가사	2297	14.1	38.2	0	510.0
		남편쇼핑	2297	5.8	26.0	0	470.0
		남편돌봄	2297	3.3	20.2	0	540.0
		부인가사	2297	168.5	97.8	0	710.0
		부인쇼핑	2297	11.4	22.6	0	230.0
		부인돌봄	2297	19.2	34.4	0	400.0

<그림 IV-9> 부부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 세부 항목

(단위: 분)



다. 여가

자유시간 가운데 대중매체 이용 시간과 레저 시간만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여가 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남녀간 여가 시간의 차이는 변하지 않은 채 가족주기에 따라 남녀별로 근소한 변동을 보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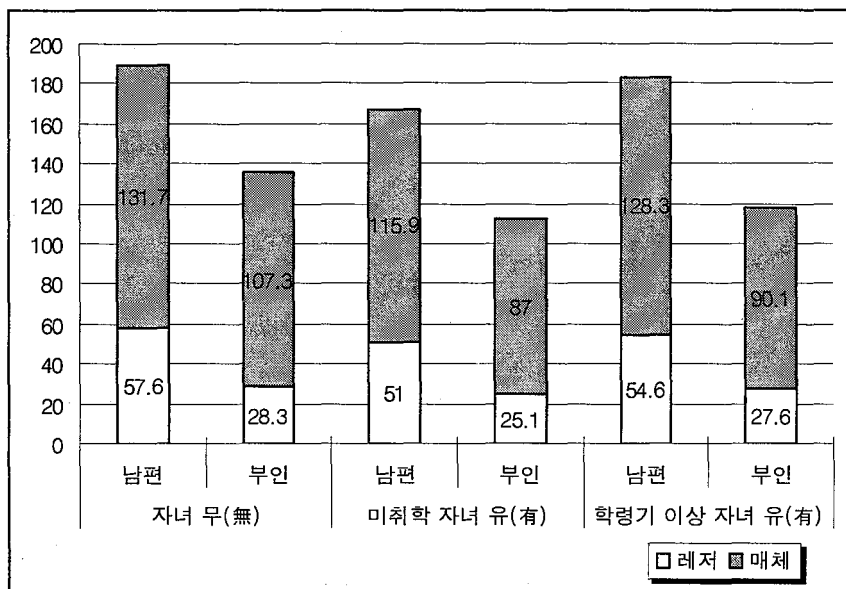
<표 IV-10> 부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06	남편매체	206	131.7	124.9	0	620.0
		남편레저	206	57.6	95.4	0	600.0
		부인매체	206	107.3	91.1	0	520.0
		부인레저	206	28.3	54.9	0	370.0
미취학 자녀 유(有)	897	남편매체	897	115.9	114.4	0	730.0
		남편레저	897	51.0	83.0	0	790.0
		부인매체	897	87.0	82.2	0	540.0
		부인레저	897	25.1	45.6	0	350.0
학령기 이상 자녀 유(有)	2297	남편매체	2297	128.3	124.9	0	890.0
		남편레저	2297	54.6	83.9	0	650.0
		부인매체	2297	90.1	82.1	0	710.0
		부인레저	2297	27.6	46.4	0	410.0

<그림 IV-10> 부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단위: 분)



라. 총노동시간

부부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모든 가족주기에서 여성이 월등히 높다. 자녀가 없는 가족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127분 더 일하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161분 더 일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가족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202분 더 일한다. 젊은 세대인 20대 집단에서도, 자녀가 자라서 집안일이 어느 정도 줄어든 가족주기에서도 부부간 가사분담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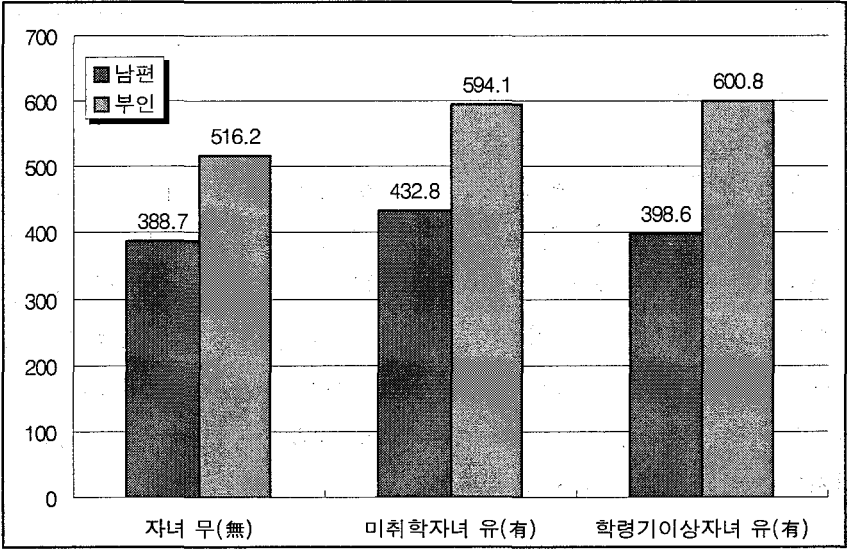
<표 IV-11> 부부의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단위: 분)

가족주기	관측치수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무(無)	206	남편	206	388.7	252.8	0	890.0
		부인	206	516.2	177.3	70	950.0
미취학자녀 유(有)	897	남편	897	432.8	243.1	0	1040.0
		부인	897	594.1	166.4	0	1070.0
학령기이상자녀 유(有)	2297	남편	2297	398.6	249.7	0	1020.0
		부인	2297	600.8	164.9	0	1080.0

<그림 IV-11> 부부의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단위: 분)



그린슈타인(Greenstein, 1995)은 부부간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부부의 '성평등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이데올로기 유형을 '전통형'과 '평등형'으로 이분하여 조사대상 부부를 4가지 쌍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가사분담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공평한 가사분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남성이 성평등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였다. 즉 가사분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남성의 태도로서 가족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의식지체 현상이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전업주부의 남편과 취업주부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한 가사분담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이 사회적으로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가사와 양육의 파트너인 남성에게서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여성의 선택은 가장 방어적인 형태, 즉 출산과업(birth strike)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에게 현재의 가족형태는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평등 의식수준과 거리가 먼 현실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을 감내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될 것이다. 토어와 쇼트(2004), 킨즐러(2002)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 혹은 가족내 남녀간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지는 사회일수록 일정한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사회의 가족내 불평등 구조는 한국사회의 극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하겠다.

성 형평성과 출산력

- | | |
|-------------------|----|
| 1. 표본의 특성 | 57 |
| 2. 둘째 출산 의향 분석 결과 | 60 |

1. 표본의 특성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외국의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한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 첫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째 출산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게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한국사회 극저출산 현상의 관건이 되는 지점이 바로 한국의 출산력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인 2명 이하에서 급락하여 거의 1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조사 시점 당시 한 자녀를 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에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 대상은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867명의 기혼 여성 가운데, 둘째 출산 계획 응답이 비교적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20세-34세의 기혼 여성 516명이다. 조사 시점 당시 한 자녀를 둔 20세-34세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V-1>과 같다.

51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의 57.8%인 298명이 30세-34세에 집중되어 있다. 표본의 절반가량이 고졸 학력자이며 30% 정도가 4년제 대졸 학력자이다. 또한 표본의 84%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35.7%인 184명이다. 이들 가운데 53%는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61.6%, 3세 이상 학령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은 26.2%이다. 첫째 자녀의 53.7%가 남아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69.8%인 360명은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지만,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V-1> 한 자녀를 둔 여성의 특성

	도수	백분율(%)
출생 코호트		
20-24세	33	6.40
25-29세	185	35.85
30-34세	298	57.75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9	1.74
고졸(중퇴포함)	228	44.19
전문대졸(중퇴포함)	122	23.64
4년제대졸(중퇴포함)	157	30.43
주거단위		
동부	435	84.30
읍/면부	55	10.66
부인의 직종		
무직	332	64.34
관리전문	68	13.18
사무직	51	9.88
판매서비스	44	8.53
농림업	1	0.19
기계단순노무	20	3.88
남편의 직종		
무직	34	6.59
관리전문	148	28.68
사무직	106	20.54
판매서비스	104	20.16
농림업	3	0.58
기계단순노무	121	23.45
부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14	2.71
무급가족	18	3.49
상용직	103	19.96
임시/일용직	49	9.50
비경제활동	332	64.34
남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107	20.74
무급가족	2	0.39
상용직	326	63.18
임시/일용직	47	9.11
비경제활동	34	6.59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241	46.71
주택소유자	275	53.29

<표 V-1> 계 속

	도수	백분율(%)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	140	27.13
176만원-234만원	121	23.45
235만원-292만원	65	12.60
293만원-439만원	117	22.67
440만원 이상	73	14.15
취업유무		
없다	332	64.34
있다	184	35.66
첫째아 성별		
남아	277	53.68
여아	239	46.32
초혼연도		
2000-2004년	336	65.12
1995-1999년	161	31.20
1990-1994년	18	3.49
1985-1989년	1	0.19
가사부담 공평성		
매우 그렇다	37	7.44
대체로 그렇다	185	37.22
별로 그렇지 않다	184	37.02
전혀 그렇지 않다	91	18.31
집안일 분담정도		
전적으로 부인이	124	25.83
대체로 부인이	237	49.38
부부가 함께	117	24.38
대체로 남편이	2	0.42
자녀돌보기 분담정도		
전적으로 부인이	62	13.54
대체로 부인이	221	48.25
부부가 함께	172	37.55
대체로 남편이	2	0.44
전적으로 남편이	1	0.22
2세미만자녀여부		
없다	198	38.37
있다	318	61.63
7세미만자녀여부		
없다	381	73.84
있다	135	26.16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원함	360	69.77
기타	156	30.23

2. 둘째 출산 의향 분석 결과

현재 한 자녀만을 둔 20세-34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로짓 분석을 하였다. <표 V-2>는 로짓분석 결과이다. 분석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전체의 54.7%인 282명이고 나머지 234명은 둘째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분석 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자녀 태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 주기상의 가족 계획으로 보인다. 25세-29세 연령의 여성들이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여성들보다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 연령이 더 높은 여성들에 비해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둘째 출산을 앞당김으로써 자녀 태울을 조절하고 자녀 양육 기간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90% 유의도 수준에서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은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족 보살핌 노동의 극대화 상황에서 중요한 조력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첫째 자녀의 성이 남아인 경우 첫째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 비해 90% 유의도 수준에서 둘째 출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약하나마 34세 이하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이 관찰된다고 하겠다. 분석 대상의 2/3 가량이 이상적인 자녀수로 두 자녀를 꼽았는데, 이때 딸, 아들 구별하여 두 자녀를 원한다는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그러므로 첫 자녀가 여아이면서 이상적인 자녀수가 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둘째 출산을 계획한다고 보인다.

분석 결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둘째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나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여성의 종사상 지위,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그들은 첫째 자녀의 성별, 첫 자녀의 연령, 본인의 연령으로 표현되는 가족 주기, 이상적인 자녀 구성 등에만 영향을 받아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동거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가구구성원이나 남편의 직종, 고용형태, 부인의 직종 등도 둘째 출산 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가족내 성 형평성 변수 역시 여성들의 혹은 부부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내 성 형평성은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되고 있는데 하나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일반 가사노동+가족 보살피기 노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내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분석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여성들이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에서 얼마나 공평하다고 인식하는지 간에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은 차이가 없었다.

<표 V-2>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전체 -

	전체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	-1.628	0.659
출생코호트		
20-24세	0.498	0.445
25-29세	0.520 *	0.223
30-34세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0.943	0.897
고졸(중퇴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포함)	-0.000	0.249
4년제대졸(중퇴포함)	-0.102	0.252
거주지		
동부	-0.184	0.269
읍/면부	(준거범주)	
부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0.563	0.608
무급가족	0.372	0.532
상용직	(준거범주)	
임시/일용직	-0.112	0.369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	(준거범주)	
176만원-234만원	0.191	0.278
235만원-292만원	0.231	0.334
293만원-439만원	0.970	0.290
440만원 이상	0.086	0.354
2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739 *	0.301
7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044	0.313
총가구원수	0.263 #	0.140
남아수	-0.312 #	0.187
남편가사노동시간	8.73E-6	0.000
성형평성	0.112	0.210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 원함	0.344	0.212
기타	(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없이	(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595 **	0.229
-2 Log L	631.015***	
d.f.	21	

주: # p<0.1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여부가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전업 주부의 집단간 평균 비교를 해 본 결과, 둘째 출산 계획에서 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55.2%가 둘째 출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전업주부 가운데 54.5%가 둘째 출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의 집단 평균은 유의도 99%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뉘었을 때 각 집단 내에서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연히 구별되었다.

먼저 취업 여성의 둘째 출산 의향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가 <표 V-3>이다. 분석 결과, 전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4세-29세 취업 여성들이 이 연령층 전후의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여성의 경우와 달리 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 여성들은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둘째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취업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들의 둘째 출산 의향도 높아졌다.

취업 여성의 경우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데, 첫째 자녀의 성이 남아이나 여아이나 하는 점이나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어서 빨리 둘째 출산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의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둘째 출산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일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의 지속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평균 소득이고 둘째 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녀 양육 및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전략을 둘째 출산 포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석 대상의 2/3 가량이 이상적인 자녀수로 두 명을 꼽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은 주로 가족보살피기의 조력자를 마련하고, 미약하나마 남편과의 가사 분담 공평화 등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생각하듯이 여성의 소득이 증대하면 자녀 출산에 따른 무급노동의 증대를 시장화할 자원이 증대한 것이므로 둘째 출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으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자녀 출산은 여성의 고소득 경제활동에 부(-)적 요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적어도 일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혼 취업 여성의 과도한 이중 부담은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 지속'과 '자녀 출산'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 둘을 중재하는 요소로서는 가구소득이나 여성자신의 소득과 같은 '가용 자원'보다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같은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이 보다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V-3>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취업여성 -

	취업여성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	-1.666	1.214
출생코호트		
20-24세	-0.201	0.851
25-29세	0.860 #	0.455
30-34세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14.495	597.0
고졸(중퇴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포함)	-0.253	0.479
4년제대졸(중퇴포함)	-0.387	0.440
거주지		
동부	0.154	0.492
읍/면부	(준거범주)	
여성의 평균근무시간	0.005	0.013
여성의 월평균소득	-0.002 *	0.001
2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038	0.553
7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530	0.546
총가구원수	0.429 #	0.226
남아수	-0.293	0.351
남편가사노동시간	0.001 #	0.000
성형평성	0.092	0.390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 원함	0.230	0.392
기타	(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없이	(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656	0.432
-2 Log L	197.398*	
d.f.	1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V-4>는 전업주부의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업주부 집단은 둘째 출산 의향에 있어서는 거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에게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지, 원하는 자녀가 딸, 아들 구별하여서인지 하는 두 가지이다. 즉 이들은 가족주기에 따른 가족계획 속에서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자녀 양육기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표 V-4>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전업주부 -

전업주부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	-1.224	0.850
출생코호트		
20-24세	0.418	0.541
25-29세	0.287	0.284
30-34세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 포함)	0.216	1.141
고졸(중퇴 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 포함)	0.123	0.308
4년제대졸(중퇴 포함)	0.359	0.335
거주지		
동부	-0.180	0.352
읍/면부	(준거범주)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	(준거범주)	
176만원-234만원	0.224	0.321
235만원-292만원	0.326	0.407
293만원-439만원	0.390	0.384
440만원 이상	-0.366	0.551
2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1.183 **	0.396
7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353	0.421
총가구원수	0.035	0.198
남아수	-0.380	0.242
남편가사노동시간	-0.000	0.000
성형평성	0.123	0.274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 원함	0.404	0.278
기타	(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없이	(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477 #	0.290
-2 Log L	386.694*	
d.f.	18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이 절의 분석 자료인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가운데 첫 출산과 둘째 출산 사이에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불과 9.5%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출산 의향 분석에서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이 전업주부의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미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90.5%가 비취업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 가족내 성 역할 분담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을 마치고서 다시 재취업하는 생애과정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 규범 및 경력 단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으로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한다. 즉 우리 사회 극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집단은 결혼관계내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 집단이며, 결혼관계내의 출산력 수준은, 성 역할 규범과 함께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고한 성 역할 규범이 미혼자들의 대안적 생애과정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 자체가 미혼자 집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족내

성 형평성의 실현은 미혼집단 뿐만 아니라 현재 결혼관계내에 있는 유배우 여성들의 저출산 현상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3년 '전국가족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미혼자 1,387명(남성 714명, 여성 673명)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3%에 불과했다(장혜경외, 2003). 성별로 볼 때 남성과 여성 가운데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55.5%와 49%를 나타내 미혼자의 50% 정도는 결혼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집단 전체로 볼 때, 결혼과 관련된 태도와 의향은 결혼을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으로 표현되는 결혼 연기 및 기피 현상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뿐만 아니라 미혼자 집단 내부의 성별 격차 또한 주목할 만하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성 미혼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V-1>은 성별, 취업별 결혼 계획 여부이다. 남성의 경우 결혼으로 이행에 취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규범이 오래전부터 관찰되어 왔으며(은기수, 1995)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규범은 여성 미혼자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결혼 계획이 없는 비율이 취업 17.5%, 미취업 41.9%이고 여성은 취업 23.5%, 미취업 38.7%의 분포를 나타냈다. 즉 취업하고 있지 않은 남성은 거의 절반 정도가 결혼을 계획하지 않고 있어 경제 상황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결혼 결정,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혼 여성 미취업자 가운데 38.7%가 결혼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독신 여성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들과 달리 미취업 여성들이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 여성에게 이제 취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결혼보다 취업을 선택하려는 사고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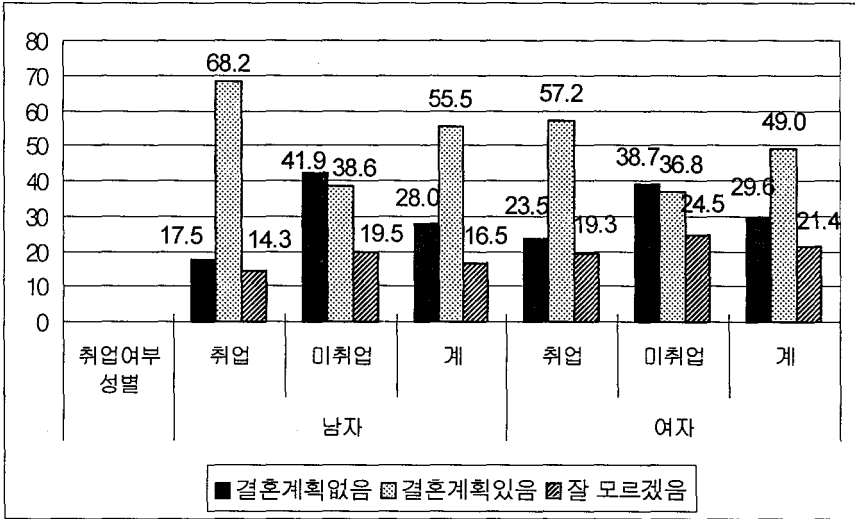
되어 감을 엿보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취업 여성의 23.5%도 결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상케 하는 결혼은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혼 계획과 관련된 남녀 미혼자의 태도는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V-5>를 보면, 미혼 여성들이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31%)”, 그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내용은 “내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이다. 즉 현재 기성 세대의 결혼 모델, 가족 모델, 부부 모델이 미혼 여성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결혼은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한다는 풍조 속에서 최대한 자신의 경력을 늘리고 일에 몰두하기 위해 결혼을 연기 혹은 기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혼 남성들은 성 역할 규범의 또 다른 희생자로서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로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해서(41%)”,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18.5%)”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자택일적인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고 남성에게 1인 생계부양의 역할을 짐 지우는 현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개인들의 생애과정 단계에서 ‘결혼’과 ‘가족 형성’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혼 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한국 사회의 관행이 매우 공고한 까닭에, 이와 같은 젊은층의 결혼 연기 및 기피 현상은 사회의 극저출산 현상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그림 V-1> 성별, 취업여부에 따른 결혼계획여부



자료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표 V-5> 성별, 연령별, 취업여부별 결혼계획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결혼해 야한다 고 생각하 지않기 때문	상대방 에게 구속되 기싫어 서	나의 일에더 열중하 기위해	결혼으 로인한 책임과 의무가 부담	결혼 제도는 여성 에게불리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	이상적 인배우 자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 어려서	무응답
성 남	34	9	37	11	1	82	18	7	1
별 자	(17.0)	(4.5)	(18.5)	(5.5)	(0.5)	(41.0)	(9.0)	(0.5)	(0.5)
여	63	16	56	5	7	38	11	2	1
자	(31.7)	(8.0)	(28.1)	(2.5)	(3.5)	(19.1)	(5.5)	(1.0)	(0.5)
연 10	9	3	9	1	0	9	2	0	0
령 대	(27.3)	(9.1)	(27.3)	(3.0)	(0.0)	(27.3)	(6.1)	(0.0)	(0.0)
별 20	64	15	76	10	7	102	25	8	1
대	(31.7)	(4.9)	(24.6)	(3.2)	(2.3)	(33.0)	(8.1)	(8.1)	(0.3)
30	15	3	7	3	1	9	2	0	1
대	(36.6)	(7.3)	(17.1)	(7.3)	(2.4)	(22.2)	(4.9)	(0.0)	(2.4)
40	6	1	1	1	0	0	0	0	0
대	(66.7)	(11.1)	(11.1)	(11.1)	(0.0)	(0.0)	(0.0)	(0.0)	(0.0)
50	1	2	0	1	0	0	0	0	0
대	(25.0)	(50.0)	(0.0)	(25.0)	(0.0)	(0.0)	(0.0)	(0.0)	(0.0)
60	2	1	0	0	0	0	0	0	0
대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이 상									
취 취	55	11	38	10	3	42	3	2	2
업 업	(33.1)	(6.6)	(22.9)	(6.0)	(1.8)	(25.3)	(1.8)	(1.2)	(1.2)
여 미	42	14	55	6	5	78	26	7	0
부 취	(18.0)	(6.0)	(23.6)	(2.6)	(2.1)	(33.5)	(11.2)	(3.0)	(0.0)
전 체	97	25	93	16	8	120	29	9	2
	(24.3)	(66.3)	(23.3)	(4.0)	(2.0)	(30.1)	(7.3)	(2.3)	(0.5)

자료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결론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아동은 '비용'이며 동시에 '그 어느 것으로도 가치를 쟁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아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오늘날의 낮은 출산력 수준을 설명하는 한 요소이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복잡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연구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이 모든 사회 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역사의 결과라는 데 주목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일련의 순환적 돌봄 영역은 개별 가족에게, 가족내 여성에게 철저하게 전담되었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시장노동에 가치 우위를 두는 현실의 힘은 강고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적으로 꿈꾸는 두 아이에 대한 가족상과 현실에서 선택하는 가족 전략은 일정한 괴리를 보인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 영역의 양성 평등 실현이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의 위기 상황을 겪었던 서구 사회의 경험은, 사회 전체의 성 형평성 수준과 가족내 성 형평성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맞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서구 사회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한국사회 극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집단인 미혼집단의 증가 및 초혼연령의 상승 추세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수케 하는 가부장적 가족의 부정적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개인의 시민권과 노동권에 대한 강조는 더욱 확대되면서도 결혼만 하면 한 성(性) 즉 여성에게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전담시킨다면 어느 누가 쉽게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

을 앞당기겠는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한국사회 생애주기별 부부간 가사분담 상황은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가족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보다 더 커리어 중심적인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들도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가족내 성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저출산 지속으로 예견되는 노동력 부족,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되는 양질의 여성노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성별분업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다시 극저출산을 야기하고 또다시 여성노동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의 확대만큼이나 가족내 성 형평성의 실현 역시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극저출산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저출산이라는 위기적 상황은 한국 사회가 망각했던 돌봄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도 전화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7, 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출산력조사』.
-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제18권 1호, 89-117쪽.
-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장혜경 외 13인,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최경수,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개발원.
- Angrist, J. & W. N. Evans, 1998,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450-477.
-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6.
- Chesnais, J.-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Cramer, J.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78-190.
- DeGraff, D. S. & R. Anker, 1999, "Gender, labour markets, and women's work", Liè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Donahoe, D. A., 1999, "Measuring women's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 543-574.
- Engelhardt H., T. Kögel, & 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i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vol. 58, no. 1, pp. 109-120.
- Folbre, N., 1997, "The Future of the elephant-bir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647-654.
- Greenstein, T. N., 1995, "Ar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ly di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chil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6: 149-169.
-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Klerman, J. A. & A. Leibowitz, 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36: 377-385.
- Künzler, J., 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hrer, E. & M. Nerlove, 1986,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81-204.

- Lloyd, C. B., 1991,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fertility surveys to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ert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22(May/June): 144-161.
- Mason, K. O. & V. T. Palan, 1981,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in Peninsular Malaysia: the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hypothesis reconsidered", *Demography* 37: 523-33.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0.
- Morgan, S. 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589-603.
- Perry-Jenkins, Maureen, Rena L. Repetti, & Ann C. Crouter, 2000, "Work and famil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81-998.
- Rindfuss, R. R. & K. L. Brewster,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258-289.
-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Torr, B. M. & S. E. Short,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Van Esterik, P. & T. Greiner, 1981, "Breastfeeding and women's

work: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 184-197.

**Gender Equity and Low
Fertility Within Family: A
Life Cycle Approach**

L I S T

I. Introduction	1
1. Current Situation of Korea	3
2. Research Question and Method	6
1) Research Question	6
2) Method	8
II. Literature Review	9
1. Gender Equity and Fertility	11
2.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15
III. Low Fertility in Korea	23
IV. Gender Structure of the Korean Family	37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39
2. Gender equity: Focusing on Time Allocation Data	48
1) Waged Labor	48
2) Non-waged labor	50
3) Leisure Time	53
4) Total Labor Hours	55
V. Gender Equity and Fertility	59
1. Characteristics of Sample	61
2. Analysis Result on Planning to Second Birth	65
VI. Conclusion	81
Reference	87

List of Tables

Table III-1 TFR and Numbers of Children Born, 1970~2003	25
Table III-2 Birth Rate Trend of OECD Countries (State Reports)	27
Table III-3 Average Age of Marriage by Year	28
Table III-4 Divorce Rate by Year	31
Table III-5 Number of Marriage by Women's Marriages Age and Number of Childbirth by Mother's Age	33
Table IV-1 Employment Status of Female on Research Sample	40
Table IV-2 Average of Women's Working Hours Per Week by Employment Status on Research Sample on Research Sample	41
Table IV-3 Group Distribution by Family Cycle	42
Table IV-4 Age Distribution of Female by Family Cycle	44
Table IV-5 Educational Attainment of Female by Family Cycle	45
Table IV-6 Employment Status of Female by Family Cycle	47
Table IV-7 Average 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49
Table IV-8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51
Table IV-9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Detailed Items, per day)	52
Table IV-10 Average Free Time of Couples (per day)	54
Table IV-11 Average Total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56
Table V-1 Characteristic of Women with Only One Child	62
Table V-1 continued	63
Table V-1 continued	64
Table V-2 Logit Analysis for Second Birth Plan - Total-	67
Table V-2 Continued	68
Table V-3 Logit Analysis for Second Birth Plan - Married Working Woman-	71
Table V-4 Logit Analysis for Second Birth Plan -Housewife-	73
Table V-5 Reasons for Single with No Plan to Get Marry by Sex, Age, Employed/Unemployed	79

List of Figures

Figure II-1 Working Couples' Housework Share and Second Child Fertility in the US.	14
Figure II-2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ates Among the OECD Countries.	18
Figure III-1 TFR and Numbers of Children Born, 1970~2003	26
Figure III-2 Population Rate of Single Women by Age	28
Figure III-3 Average Age of Marriage by Year	29
Figure III-4 Unemployment Rate Among Young People	30
Figure III-5 Number and Rate of Divorce by Year	31
Figure III-6 Number of Marriage by Women's Age	33
Figure III-7 Number of Childbirths by Age of Mother	34
Figure IV-1 Employment Status of Female on Research Sample	40
Figure IV-2 Average of Women's Working Hours Per Week by Employment Status on Research Sample	41
Figure IV-3 Group Distribution by Family Cycle	43
Figure IV-4 Age Distribution of Female by Family Cycle	44
Figure IV-5 Educational Attainment of Female by Family Cycle	46
Figure IV-6 Employment Status of Female by Family Cycle	47
Figure IV-7 Average 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49
Figure IV-8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51
Figure IV-9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Detailed Items, per day)	53
Figure IV-10 Average Free Time of Couples (per day)	55
Figure IV-11 Average Total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56
Figure V-1 Marriage Plan according to sex and employment	78

Introduction

1. Current Situation of Korea	3
2. Contents of Study and Method of Analysis	6

1. Current Situation of Korea

Korean society rapidly became an aging society and is expected to reach aged society in 2018. Given the fact that Korea has already reached an aging society in 2000, it implies that only eighteen years is needed for Korea to move from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¹⁾ The rapid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is not only due to the rise of the average life-expectancy rate but also due to demographic changes caused by low fertil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 is experiencing a hard time finding countermeasure to mitigate low fertility. In spite of continuous countermeasures put forth to uplift the fertility rate, the escape from being a nation with the lowest fertility rate (1.2 births per woman) since 2000 seems not so easy.

Since such a low fertility rate is caused by multiple and interrelated factors, any attempt to make a diagnosis of the situation properly needs a systematic approach. Here, I will only discuss a point that in order to mitigate the low fertility rate.

First, we need to consider the pre-marital period which demands both a diagnosis and solution on the low marriage rate. Given the social norm of Korean society which accepts childbirth only within marriage, a low marriage rate or an increase of marriage age directly effects low fertility. On the one hand, a

1) An aging society is said to be a society where more than 7% of the total population is elderly people whereas an aged society has more than 14%.

low marriage rate is grounded by the change in people's lifestyle followed by the spread of 'individual values'. As a gap between gender equity thinking and established family norms has widened, young generations, especially young women, no longer consider a family through marriage as a required or preferred choice. On the other hand, a low marriage rate is directly related to a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especially with a high un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which seems to delay marriage. Taking into a consideration that 'dual-earner couples' is a widely accepted marriage relationship among young people and the changes in gender role expectation of couples, the low prospect of employment has also influenced women's decision to delay marriage.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spouses' role expectation, of gender equity thinking, and in lifestyle which is also calle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 meaning of 'work' for women now became almost equal to that of men.

Second, a precise diagnosis and a solution for married couples having children below the replacement fertility rate are needed. Korean society's high educational anticipation is easily associated with the high cost of child-rearing and the desire for ever-higher family income. The inadequate social support for individuals pursuing both work and family increases the burden of child rearing to individual families, especially to women who bear the most of care-taking work.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the fertility rate is relatively high in the countries where a social system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is

well established whereas it is relatively low in the countries lacking such a system. Thus, a social system for child-care which makes pursuing work and family at the same time compatible must be continuously promoted and supported. If and only if the overloaded burden of existing family life is alleviated by the social support, the risks of women's career disruption fade away, and gender equity takes root, then the marriage would be considered as an attractive life cycle for young generations as well as for those who are already married.

As low fertility is viewed as one of the social crises, this paper starts from Folbre (1997)'s diagnosis that "present day low fertility phenomena are caused by the failure in socializing reproductive labor." Currently, the opportunity cost of reproductive labor or care-taking must be bore by the primary actor making her to be much more disadvantaged in a competitive society. Men, people who are not parents, employers, and the state have wanted women, parents, employees, and individuals to pay the opportunity cost of care-taking. A direct result from this unequal sharing of the responsibility of care-taking is the tendency to seek a reduction of the burden and the objects of care-taking, that is low fertility phenomena (Lee, et als., 2005).

To resolve the work-family conflict, this paper reiterates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role division as well as the social support, among other things. Care-taking of new generation must be recognized as a work that a society and individuals perform

together, as well as men and women, namely fathers and mothers together. Accordingly, this paper focuses on the unequal role division in family relationship as one of the frameworks explaining the extreme low fertility phenomena in Korean society. In doing so, the paper seeks to diagnose the level of gender equity in the house work division among dual-earner couples. Such findings are expected to illuminate what Korean society consider the ideal family, marriage, and work to be and the gap between ideals and the reality.

2. Research Question and Method

1)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I will first examine gender equity of married couples in the Korean family system.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daily time use of couples found in the "199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econd, I will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planning and gender equity of married couples. In other words, I will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women's intention to have children in Korea. For this, I have analyzed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rend"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2003 National Family Survey" of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s a secondary source. The detail

explana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explore gender equity of married couples, I will examine the daily time use of dual-earner couples. 'Work', 'family', and 'leisure' are three main temporal categories that make up people's ordinary daily life. These three categories interfere with each other and change through out life cycles. Thus, focusing on dual-earner couples as the unit of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how daily time use changes as individuals go through family cycles. Through the processes of match making, marriage, making a family, and extending or reproducing a family by child bearing and rearing, couples' daily lives are defined not only by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but also social relations. By looking microscopically into men and women's daily lives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daily lives and the macro-social phenomena like low fertility.

Second, I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and childbirth planning from an experiential perspective. If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gender equity affects childbirth planning, I will then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irth planning in Korea. To do so, I will analyze the data inquiring into women's intention of having addition children after having one. Such an analysis is expected to identify the main causes and the main actor group responsible for extreme low fertility.

Before moving on to the results of these two inquiries, I will

critically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works related to the two topics. A brief descrip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 will follow as a research background.

2) Method

I have followed the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to propose the research hypothesis while utilizing secondary document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low fertility phenomena.

In measuring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the data from the "1999 Time Use Survey"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analysed. Specifically, average 'waged labor hours', 'non-waged labor', 'leisure time', and 'total labor time' of dual-earner couples according to family cycles were compared.

For a factor analysis on the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for women with one child, I have used the data from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rend"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r the analysis I used the logit analysis method putting 'plan to have additional children' as a dependent variable along with independent variables already used in previous researches. Also, the "2003 National Family Survey" conducted by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as used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I

Literature Review

- | | |
|--|----|
| 1. Gender Equity and Fertility | 11 |
| 2.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 15 |

1. Gender Equity and Fertility

According to a UN report, the number of developed countries at or below the replacement fertility level has rapidly risen from five to 63 in 2000 (United Nations 2003).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gender equity in the family to explain low fertility.

McDonald (2000) put forth a series of propositions elaborating the role of gender equity in the decline of the fertility rate. He proposed that very low fertility in countries with high economic growth is associated with tension or incongruity between high gender equity in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 and low gender equity in the family and family-oriented institutions. Equal opportunity and institutional equality in the public sphere led to women equally engaging in the labor market and a rise of women's consciousness. Accordingly, if women were still left to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housework and child-rearing within the family the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women would choose to live an alternative life than to live an unequal life. Gender inequity in the family circumscribes the partnership between women and men, thus gender equity is not a cause of family decline, but a prerequisite for the stabilization of family (Künzler, 2002).

In other words, according to McDonald (2000), a difference in gender equity levels implies a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 and family-oriented institutions.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 are economic participation, wage, and sex ratio in higher education, etc. while family-oriented institutions include things like gender role division in the household. This means that countries with a middle gender equity level would have equity in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 but inequity in family-oriented institutions. However, countries with a high gender equity level would have high equity levels in the both institutions and countries with a low level of gender equity would record low equity levels in the both institutions. He further points out that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fertility rate are those with middle gender equity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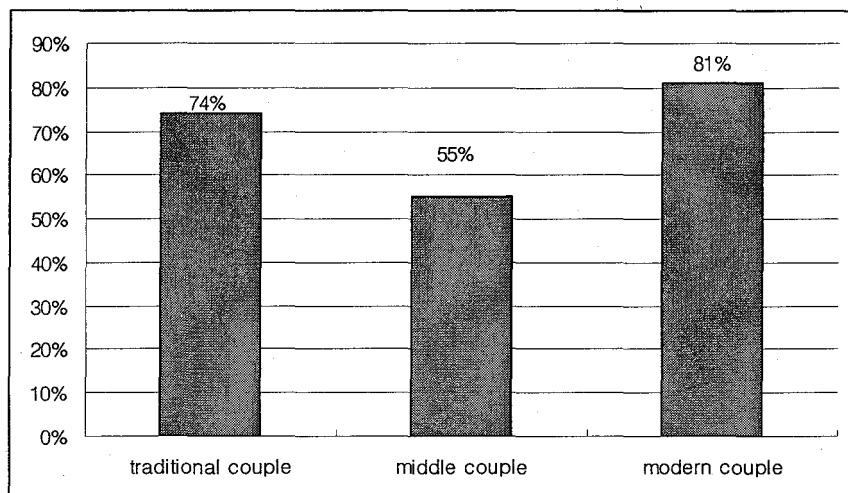
Family sociologists like Hochschild (1989) called this a 'stalled revolu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dual-earner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a remarkable change was taking place in the labor market as more women were employed but a much less dramatic change was occurring on the home front. This resulted in an extra burden to women. This analysis is similar with McDonald's framework on combination of high gender equity in individual institutions and low gender equity in family institutions. Both representations conjure up a similar image: 'overburdened' women.

Rindfuss, Brewster & Kavee (1996) stated that more the conflict in the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motherhood, more the expectation on fertility drops low. By using cross-national analyses, many other analyses (Brewster & Rindfuss, 2000; Morgan, 2003; Lehrer & Nerlove, 1986) as well, hav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cietal supports outside the household. Societal supports are as follows: maternity policies, government subsidies, flexibility in work schedules, and availability of daycare. The analyses showed that these societal supports outside the household affect fertility by enhancing the level of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child-rearing for women. Therefore, in the words of Folbre (1997) "our reproductive problem is not low fertility, but inadequate levels of paternal and social commitment to the next generation."

Chesnais (1996) argued that although decreased gender equity is associated with higher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d gender equity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higher fertility in the advanced countries. Chesnais called this the feminist paradox. A society's gender equity not only implies gender relationships but also indicates equal opportunities as well as roles, norms, and values between women and men and the extent to which how gender does not influences one's life. According to Chesnais, countries with high and low gender equity show higher fertility whereas middle gender equity shows low fertility showing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Figure II-1 Working Couples' Housework Share and Second Child Fertility in the US.



Source: Torr & Short, 2004 (recited from Lee, Jai-gyeong, 2005)

Linking Chesnais (1996)'s analysis with the relevance between second child fertility and gender equity at home in the US Torr & Short (2004) demonstrated that couples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when the level of housework share is high and also at the level of traditional gender division where wives do most of the housework than when the level of housework share is in the middle.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at home and fertility is U-shaped (See Figure II-1).²⁾ The details of Torr

²⁾ This corresponds to McDonald (2000)'s study comparing the institutional gender equity level with fertility. The failure of institutional-oriented gender equity to raise the level of family-oriented gender equity effects women's choice on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negatively.

& Short (2004)'s study is as follows. They examined the effect of housework share by working couples with a child in the US on their decision to have a second child. This study was first conducted in 1987-1988 and again five years later in 1992-1994, thus, enabling the researchers to count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second children. Accordingly, Torr & Short categorized modern couple, middle couple, and traditional couple among the working couples by wife's share of housework. As a result, the modern couple had the highest rate of second birth (81%).

In Künzler (2002)'s study,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fertility is housework division between women and men. In other words,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housework share and child-rearing showed high fertility.

2.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Over the past forty years,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creased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OECD and the BL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ose more than 20%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between 1960 and 2000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rewster and Rindfuss 2000;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000; Klerman and Leibowitz 1999). Increases of more than 10% were observed in France, Germany, and Italy during the same period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LS 2003). In the United

States over two-thirds of mothers with children under age two were in the formal labor sector in the late 1990s.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was 37% in 1975, the dramatic increase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for married women with kids is self-evident (Klerman and Leibowitz 1999).

Demographers presumed that women with fewe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Thus, they concluded that women's employment reduced fertility in the long term (Angrist and Evans 1998; Cramer 1980). However, various case studies revealed that there is no clear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mother's employment or even had positive effects sometimes (Lloyd 1991; Mason and Palan 1981).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a broader assessment of patterns of women's time usag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determines fertility in countries outside the West (DeGraff and Anker 1999; Donahoe 1999; Lloyd 1991; Van Esterik and Greiner 1981).

Low fertility is related to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 increase of women's employment is related to women's low fertility. Nevertheless, the causal sequence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re yet to be specified. This means that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re not in a fixed relationship. The same variables might produce different results in broade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Such a hypothesis is supported by the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ies like that of McDonald and Chesnais which showed the fertility rate varied according to how gender equity was achieved in different sectors of society. Le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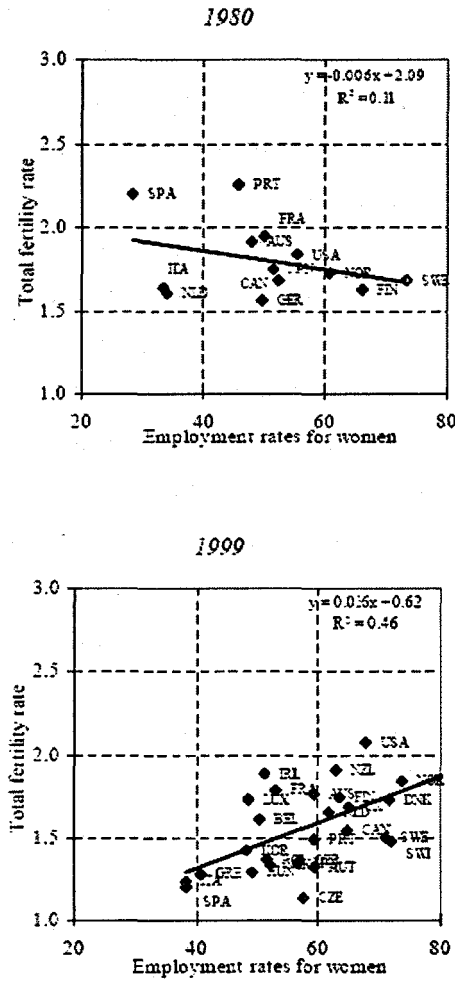
now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detail.

A general supposition o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s that an increase in women's employment leads to an decrease in fertility. Such a supposition is premised on a presupposition that an increase i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ises the ages for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opportunity cost of child-rearing, thus decreases fertility.

However, these suppositions cannot not fully explained social fertility changes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The effects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on fertility change are not homogeneous nor have alway causal relations. It is true that an increase i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effects fertility while childbirth activities such as technology of controlling childbirth effects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However, the forms and directions of state policies or the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which they influence would not be the same. The directions and levels of the variation would be different in times and in countries (Lee, 2005).

In the case of Korea, the total fertility rate decreased from 6.0 persons in 1960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Bureau of Research and Statistics, 1977) to 1.17 persons in 2003 whil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ncreased from 26.8% in 1960 to 48.9% in 2003 showing a consistency with above suppositions. However, in other countries, the fertility rate is increasing or stabilizing as women's employment increases.

Figure 11-2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ates Among the OECD Countries.



Source: Sleebos (2003: 20)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among the OECD countries (Figure II-2), we can see that women's low economic participation led to low fertility in 1980 but women's high employment rate led to high fertility in 1999. In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showed high relevancy of $R^2=0.46$.

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increase i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the fertility rate decreases. However, whe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continues to increase and increases to a more stable condition, the fertility rate stabilizes or maintains the level of social expectation. In additio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s not the only factor effecting fertility but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like the enhancement of women's social status, family change, and degree of state policy supporting child-rearing all influences fertility.

If so, what are the reasons for low fertility worldwide? At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 the postponement of childbirth there are various but similar structures according to each country.

The common cause of childbirth postponement among the low fertility countries is high economic uncertainty emerging in the early developing period. This uncertainty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delaying long-term decisions such as childbirth. It induces people to invest in other forms of human capital, for example, education. In the case of Southern Europe, the countries are in

middle upper levels in income and are experiencing steady growth and low inflation. At the same time, these countries have high unemployment rates of young people who experience difficulty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Compared to Northern Europe, young women have far higher unemployment rate than men in these countries. Chronic increases in young people's unemployment have hindered young people from entering the labor market and made higher education more attractive. The uncertainty comes from the high unemployment rates of young people and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Accordingly, lengthening the educational period would be an inevitable choice for young people in these countries seeking opportunities for stable and good jobs. Rational decision making at an individual level to avoid uncertainty met with childbirth postponement resulting in low fertility in the state at a macro level.

In Korea, the situation is much similar. Choi Gyeong-su (2003) wrote that the cause of the reduction of birth rate and the continuity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is the worsening of employment condition among young people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Decrease in income, dim prospect of having a career, and increase in the uncertainty of future will affect fertility negatively (Sleebos, 2003). This is in line with the observations in Northern Europe and the Anglo-American region with high employment of young people with high fertility and in Southern Europe with low employment of young people accompanied with low fertility. The increases in young people's

unemployment and instability of job market have delayed marriage or childbirth among young people resulting negative effects on fertility.

Among the low fertility countries, the postponement of childbirth appears due to a common social environment or institution. In the case of Southern Europe such as Italy or Spain, adequate provisions for supporting child care are scarce. Formal employment are relatively inflexible in part-time work demand or returning to work after maternity leave. In Italy and Spain governmental provisions supporting the family, such as tax allowance or direct supports are the lowest compared to other Western Europe. Scarce governmental supports are partly replaced by strong familial ties, for example, grandparents provide the economic support or help in child-rearing. However, the family substituting public provisions is insufficient in moder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rather it will act as a limitation.

In Italy and Spain, women are more lagging behind in adjusting to new roles in the family. In these countries, the gender equity level in housework sharing is very low. These cases coincide with McDonald observation on gender equity. As mentioned above, McDonald observed that the lowest fertility rate i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high gender equity in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 (such as employment) and low gender equity in family-oriented institutions.

In sum,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lone is not enough in measuring the fertility rate of a society. As it is reveale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are higher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an in Korea. This explains that women in developed countries no longer need to choose between economic activity and fertility, however women in Korea are still forced to choose between these two. Without ameliorating this situation, it will not be possible to increas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to the level of Western society.

III

Low Fertility in Korea

Since the 1960s the fertility rate in Korea has decreased. Combined results from the government led family planning project from 1962, increase in the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economic activity, and changes in one's values have decreased TFR (total fertility rate)³⁾ from 6.0 births per woman in the 1960s to 4.53 in the 1970s and 2.08 persons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1983. Such a trend of decrease continued until the late 1990s and reaching 1.47 births per woman in 1998 and 1.19 in 2003 (See Table III-1 and Figure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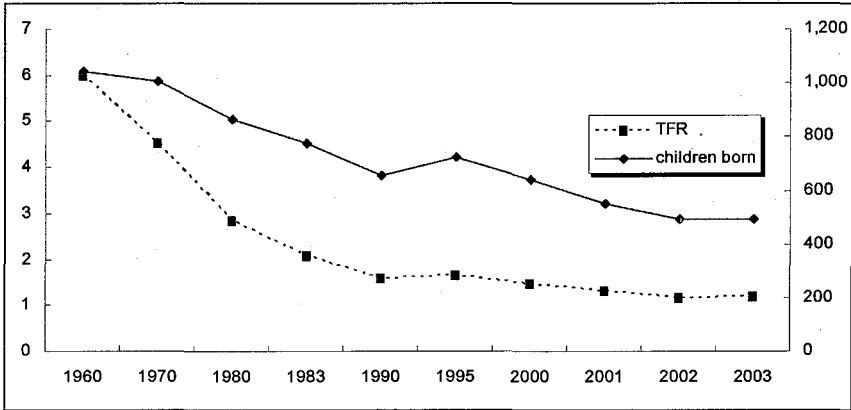
Table III-1 TFR and Numbers of Children Born, 1970~2003
(Unit: number of persons, thousand)

year	1960	1970	1980	1983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TFR	6.00	4.53	2.83	2.08	1.59	1.65	1.47	1.30	1.17	1.19
children born	1,041	1,007	865	778	656	721	637	551	495	494

Source: 1) 1960 data are from Gong Seh-gwon et al, (1992: 203), 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Dynamic Statistics on Population"

3) An average childbirth rate of women having children in child-bearing age (age 15-49).

Figure III-1 TFR and Numbers of Children Born, 1970~2003
(Unit: number of persons, thousand)



Source : 1) 1960 data are from Gong Seh-gwon et al, (1992: 203)

Similar to TFR, the number of children born ha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1960 from 1.04 million to 0.5 million in 2003, which is less than half.

Recent TFR of 1.2 births per woman in Korea mark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and even the lowest among the OECD countries which have relatively lower fertility. In other words, presently Korea is posited as the lowest-low-fertility country. (See Table III-2)

Table III-2 Birth Rate Trend of OECD Countries (State Reports)
(unit: average numbers of children women give birth)

	1990	1998	2000	2001	2002	2003
Japan	1.54	1.34('99)	1.36	1.33	1.32	1.29
Germany	1.45	1.34	1.34	1.35	1.40	
Sweden	2.13	1.51	1.54	1.57	1.65	
France	1.78	1.75	1.89	1.89	1.88	
Spain	1.36	1.15	1.22	1.24	1.25	
Italy				1.25	1.26	
United Kingdom			1.64	1.65	1.73	
USA				2.03	2.01	
Australia				1.73	1.75	
Korea	1.59	1.47	1.47	1.30	1.1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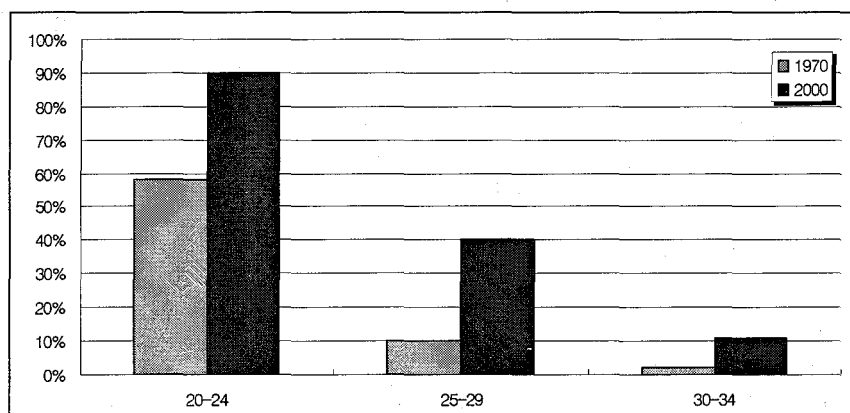
Source: NCH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52, Eurostat 'First results of the demographic data collection for 2002(2001) in Europe' series FM1 no. 31 'Birth statistics', 3301.0 2002 Births'

In Korea, childbirth is considered as an institution such as marriage and must be engaged only after marriage, thus, effects not only fertility but also the composition,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family. From this point of view, childbirth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marriage, making a family, one's values on family institution, and influences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s, etc.

As shown in Figure 5-4, rise of women's educational level, economic activity, and aspiration for self-fulfillment have delayed or withdrew marriage as a life choice, resulting to the sharp rise of unmarried women population aged between 20-24 slightly over 50% in 1970 toward almost 90% in 2000.

Figure III-2 Population Rate of Single Women by Age

(unit: %)



Source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Dynamic Statistics on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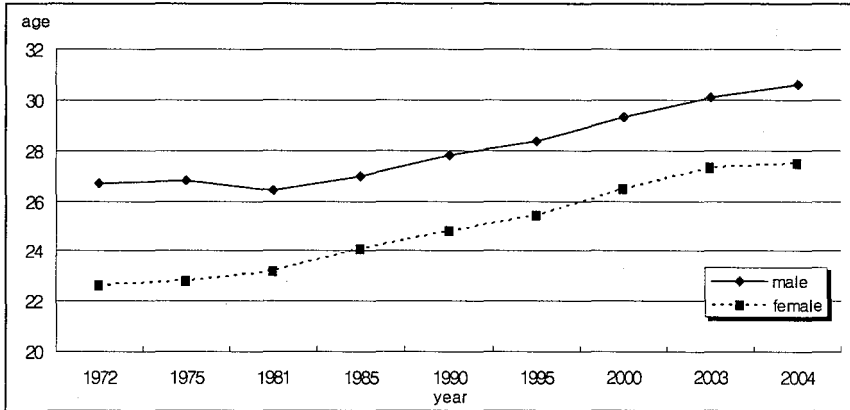
Table III-3 Average Age of Marriage by Year

(Unit: age)

	1972	1975	1981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M	26.7	26.8	26.4	27.0	27.8	28.4	29.3	30.1	30.6
F	22.6	22.8	23.2	24.1	24.8	25.4	26.5	27.3	27.5

Source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Trends of Major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Divorce after 1970"

Figure III-3 Average Age of Marriag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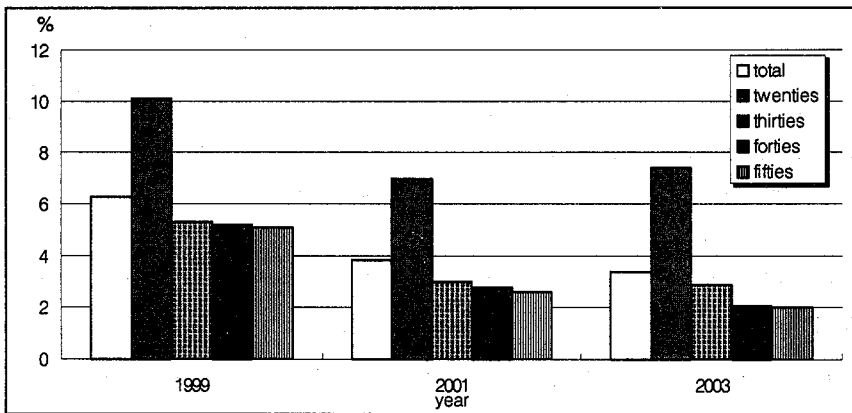


Source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Trends of Major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Divorce after 1970"

As in case of men, the average marriage age has risen from 26.8 in 1975 to 30.1 in 2003. For women, marriage also is delayed from age of 22.8 in 1975 to 27.3 in 2003 (Table III-3, Figure III-3). Delaying the time of marriage means childbirth are also postponed. In other words, as the number of women who are able to have children within marriage status decreased, fertility got lower. As women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prior to marriage recognized that work and child-rearing would not be compatible, they decided not to think about childbirth. In addition, the increase in economic burden for child-rearing made women to hesitate or decide not to have many children, thus resulting in low fertility. The financial economic crisis in 1997 had enormous effects in lowering fertility, which continued from

the late 1990s. After the economic crisis, increase in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weakness of economic infrastructure, and growing uncertainty of future have strongly affected people's decision to delay marriage or not get married altogether.

Figure III-4 Unemployment Rate Among Young People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Annual Report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pp147-152.

As presented in Figure III-4,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to 3.4% in 2003, which is a 0.3% increment compared to 2002. Compared this with age differences, the unemployment rate of middle and old-age over 30s remained the same at 2%, whereas the unemployment rate of people in 30s reached 7.4%, which is the highest record since 2000. This high rise of unemployment rate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delaying marriage decision.

In addition, steep rise of divorce cases have also affected in lowering fertility (Table III-4, Figure III-5). The number of divorce was 12,000 in 1970 and 24,000 in 1980 and have sharply increased to nearly 167,000 cases in 2003.

Table III-4 Divorce Rat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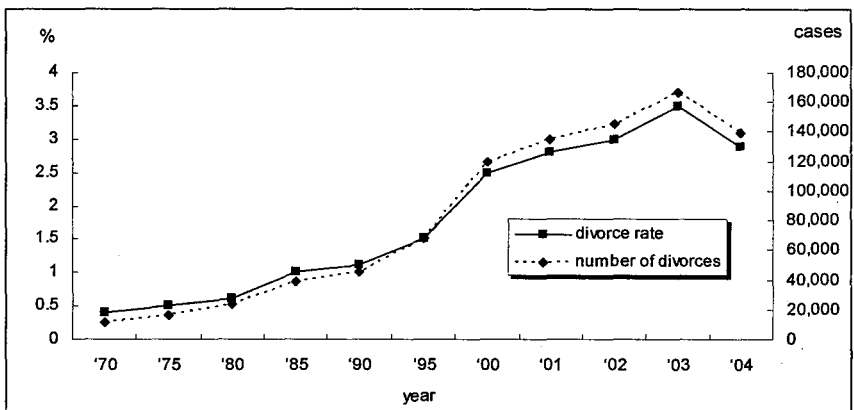
(unit: %, cases)

구분	'70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rate (%)	0.4	0.5	0.6	1.0	1.1	1.5	2.5	2.8	3.0	3.5	2.9
cases	11,615	16,453	23,662	38,838	45,694	68,279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Change of Major Characteristics of Marriage & Divorce Since 1970'.

Figure III-5 Number and Rate of Divorce by Year

(unit: cases)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Change of Major Characteristics of Marriage & Divorce Since 1970'.

Then, what is the number of marriage in Korea? Table III-5 and Figure III-6, Figure III-7 reveal the trends of women's marriage by age and changing numbers of children born by mother's age. As we can surmise from the above trend of increase in unmarried rates, the number of couples getting married in Korea is decreasing in absolute scale. Especially, as the number of women in 20s getting married dropped significantly the marriage age got higher while the unmarried period got elongated. Nevertheless, the question whether this marriage postponement would only lead to increase in marriage age or shortening of the period of family formation through marriage in life cycle process still remain.

Decrease in the number of marriage would lead to increase in marriage age, and increase in marriage age will change the distribution of numbers of children born by mother's age by increasing the age of women having first birth. In 1999, women's ages that had the highest number of children born were from 25 to 27, but in 2003, this age group have change to from 30 to 34. In a state when women's pregnancy period are limited, increase in age of mother of first child would directly lead to low fertility. Especially in Korea where childbirth are only accepted within the marriage system, decrease in marriage cases and increase in age of first childbirth would directly lead to low fertility in society as a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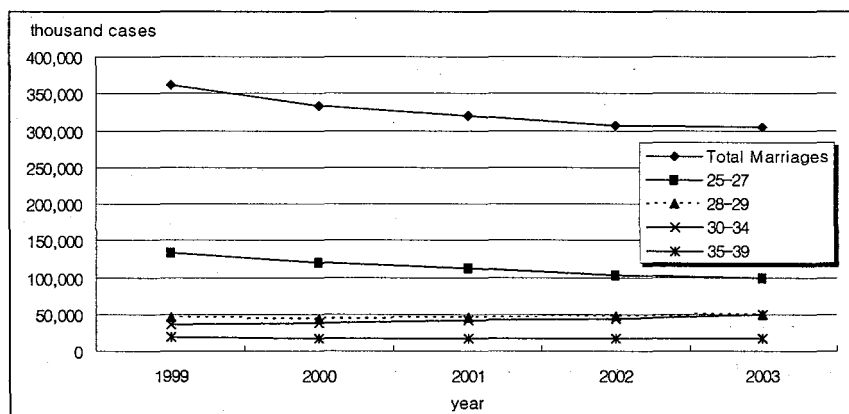
Table III-5 Number of Marriage by Women's Marriages Age and
Number of Childbirth by Mother's Age

Unit: Thousand Persons, Thousand Cases

	1999	2000	2001	2002	2003
Total Marriages	362,673	334,030	320,063	306,573	304,932
age 25-27	133,127	120,847	112,456	103,661	99,362
28-29	44,902	44,040	45,673	47,688	49,131
30-34	36,928	38,294	41,655	44,525	48,702
35-39	18,206	16,924	17,687	17,110	17,902
Total Births	616,322	636,780	557,228	494,625	493,471
age 25-27	190,137	179,204	144,777	114,307	106,146
28-29	141,285	149,909	129,371	112,865	113,786
30-34	156,751	183,930	174,718	170,489	180,190
35-39	33,556	37,203	35,683	34,265	36,036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8, 'Statistics of Births & Deaths in 2003'(Press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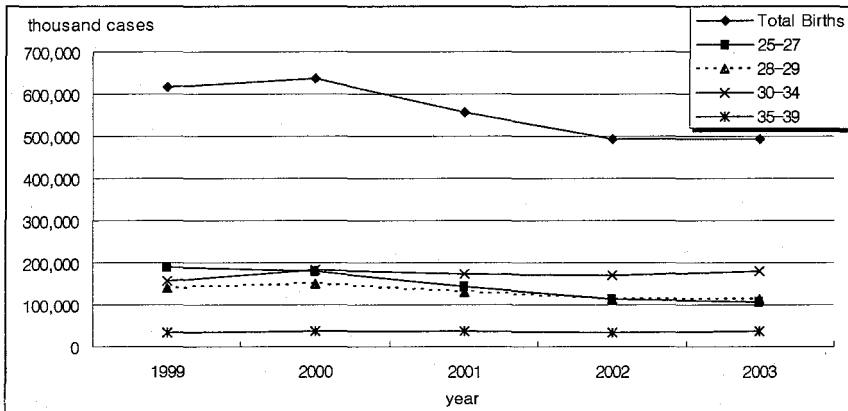
Figure III-6 Number of Marriage by Women's Age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8, 'Statistics of Births &

Deaths in 2003'(Press Releases)

Figure III-7 Number of Childbirths by Age of Mother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8., 'Statistics of Births & Deaths in 2003'(Press Release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resulting from low fertility is the rapid change toward aging society and decline of social maintenance population, in other words, increase of social burden. As provisions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creased and standard of living enhanced, the speed of fertility decline became much faster than the speed of the fertility recovery resulting in continuous decrease of the natural growth rate population which is the result of the number of the deceased subtracted from the number of babies born in Korea. Therefore, by maintaining TFR of 2.1 birth per woman below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Korea's future total population would be

viewed as reaching fixed point of zero soon and aftermath fall rapidly. Most of all, with rapid prolongat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low fertility will lead to problems of aging population. Meanwhile, as population of age between 15-64 (within age able to produce) supposedly fell down rapidly, the burden for caring elderly population is prospected to be weighted more.

IV

Gender Structure of the Korean Family

-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39
- 2. Gender equity: Focusing
on Time Allocation Data 47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To examine gender equity among couples within the family, this research selected only working couple families in the 1999 life cycle survey samples. Also to specify the comparison of time distribution between non-wage labor and wage labor among couples, I have limited samples to 'age groups from 20s to 40s' and 'groups of women working more than 35 hours per week'. the total number of samples is 3,668 households of working couples living together.

Considering women's employment status, the biggest group is wage workers with 51.7% (1,898 persons) followed by non-wage working people with 26.6% (1,014 persons). And the rest are self employed (17.8%, 653 persons) and employer (2.8%, 103 persons). Examining women's working hours per week through employment status, we can recognize that these women in the sample are working immensely long hours. The longest working hour group is the employer group, which works 69 hours per week followed by the self employed group who works 65 hours per week, non-wage working group working 61 hours per week, and wage worker group working 53.5 per week.⁴⁾

4) Life cycle research data are a kind of self recorded daily chronicles, which records one's time usage activity of two days per 10 minutes. Thus,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over-interpretation of non-wage labors' waged labor hours, as self employed, non-wage worker, and employers' work place and home are indistinguishable.

Table IV-1 Employment Status of Female on Research Sample

Unit: Number of Persons, %

Employment Status	frequency	%	cumulative frequency	cumulative %
Paid employees	1898	51.74	1898	51.74
Employer	103	2.81	2001	54.55
Self-employed	653	17.80	2654	72.36
Unpaid family workers	1014	27.64	3668	100.00

Figure IV-1 Employment Status of Female on Research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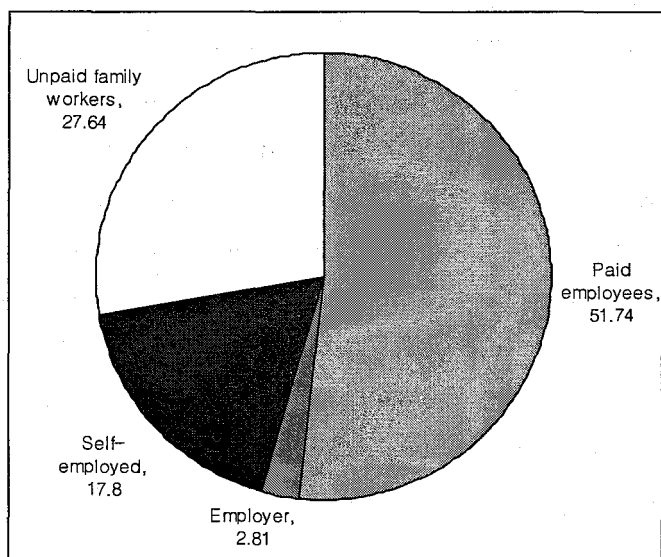


Table IV-2 Average of Women's Working Hours Per Week by
Employment Status on Research Sample

Unit: number of persons, times

employment status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Paid employees	1898	53.6	12.7	35.0	119.0
Employer	103	68.2	17.9	35.0	119.0
Self-employed	653	65.2	17.8	35.0	119.0
Unpaid family workers	1014	61.3	17.4	35.0	119.0

Figure IV-2 Average of Women's Working Hours Per Week by
Employment Status on Research Sample



To examine gender equity among couples by following the life cycle, I have sorted the samples into three groups consi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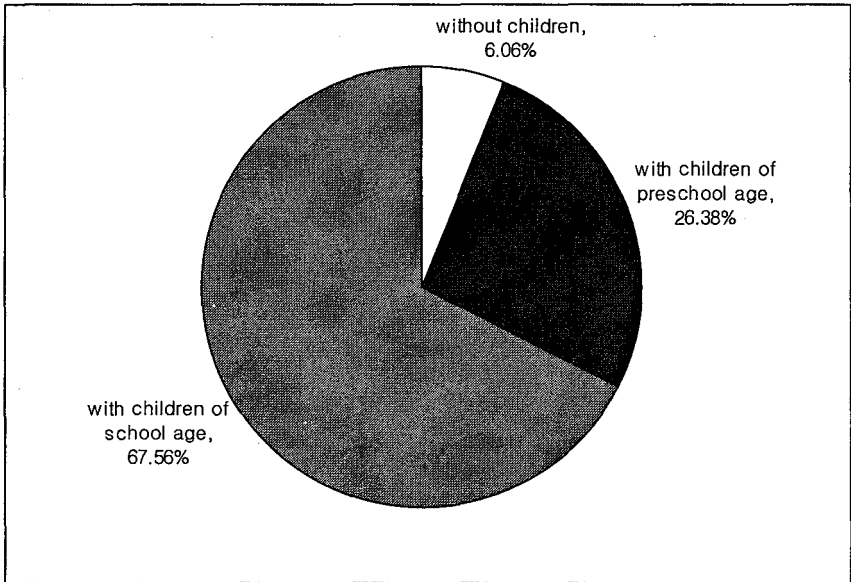
'family size' and 'family cycle'. The first group is a household without children. In order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cases of with no children and the cases of not living together with grown up children, I have limited the groups to age of 30s which include only families yet to have children. Couples in the 20s and 30s are included in this group and 206 households (6.06% of whole) fall under this group. The second group is families with children in preschool age. Mainly couples in the 30s are included in this group and 897 households (26.38%) fall under this group. The third group is families with children in school age. This group is composed of 2,297 households (67.56%) and couples in the 40s. The characteristic of each groups are as follows.

Table IV-3 Group Distribution by Family Cycle

Unit: Family, %

Family Cycle	frequency	%	cumulative frequency	cumulative %
without children	206	6.06	206	6.06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897	26.38	1103	32.44
with children of school age	2297	67.56	3400	100.00

Figure IV-3 Group Distribution by Family Cycle



As we can see from Table IV-4, the age compositions of each group are followed by the trend of life cycle. In the group one without children, 70% of women are in the 20s and in the group two with children in preschool age, 70% of women in the 30s. And in the group three with children in school age, women in the 30s are 43.8% while women in the 40s are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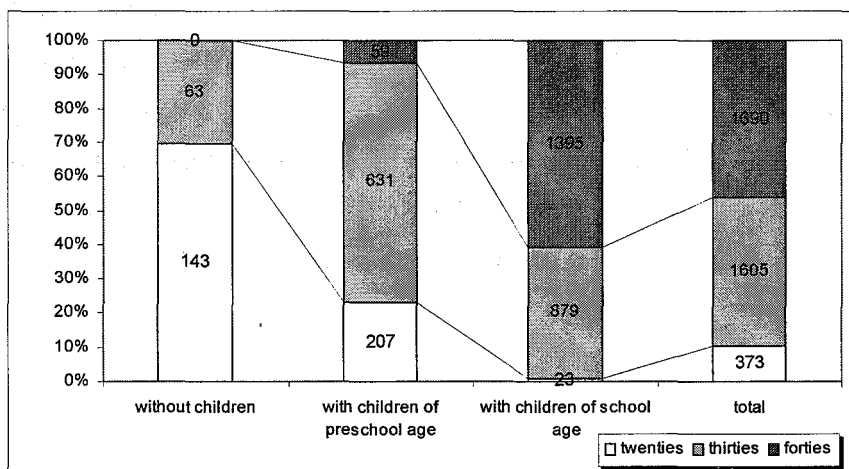
Table IV-4 Age Distribution of Female by Family Cycle

Unit: number of persons, %

age	twenties	thirties	forties
without children	143 69.42	63 30.58	0 0.00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207 23.08	631 70.35	59 6.58
with children of school age	23 1.00	879 38.27	1395 60.73
total	373 10.17	1605 43.76	1690 46.07

Figure IV-4 Age Distribution of Female by Family Cycle

Unit: number of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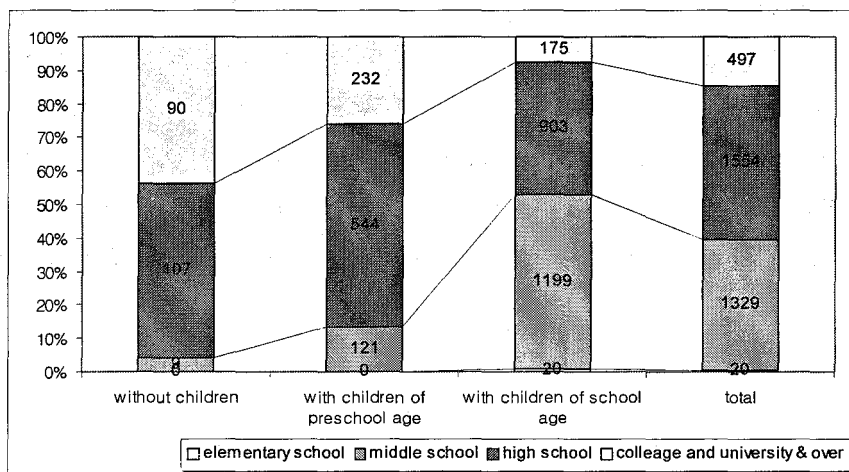
As shown in Table IV-5, women's education distribution follows the same track as age composition. In the group one, 51.9% of women are high school graduates similar to that of women with college degree (43.7%). In comparison with this, 60.7% of women are high school graduates and 25.9% of women are with college degree in the group two. Among the women in the group three, the majority is middle school graduates with 52.2% from the total followed by high school graduates (39.3%) and then college degree (7.6%).

Table IV-5 Educational Attainment of Female by Family Cycle

Unit: number of persons, %

educational attainment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nd university & over
without children	0 0.00	9 4.37	107 51.94	90 43.69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0 0.00	121 13.49	544 60.65	232 25.86
with children of school age	20 0.87	1199 52.20	903 39.31	175 7.62
total	20 0.59	1329 39.09	1554 45.71	497 14.62

Figure IV-5 Educational Attainment of Female by Family Cycle
Unit: number of persons



As we can see from Table IV-6, women's employment status differentiated by life cycles in three groups have following similar tracks of age distribution and education distribution. As a whole, the major employment status of each group is wage labor. But the distribution have changed according to life cycle. As wage labors in group one hold 79.6%, this ratio have decreased to 54.4% in group two and rather the ratio of self employed and non-wage labor have increased. In group three, the ratio of self employed and non-wage labor are a little bit high than in group two. Through the whole life cycle, the ratio of women working as an employer are very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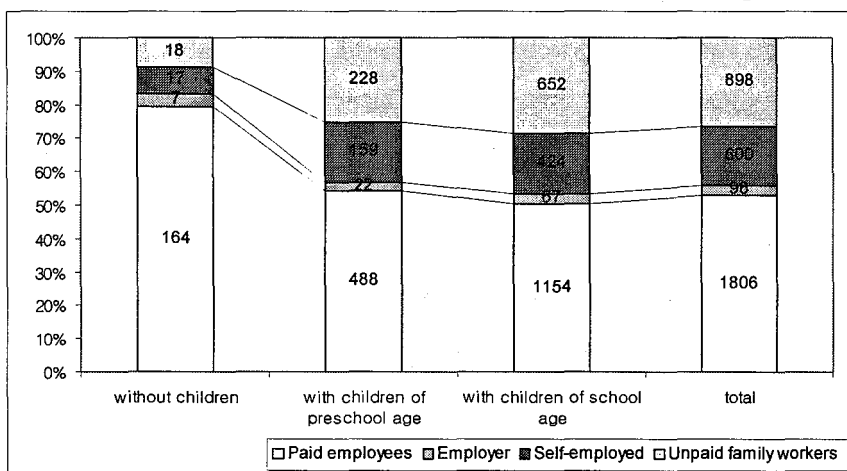
Table IV-6 Employment Status of Female by Family Cycle

Unit: number of persons, %

frequency row %	Paid employees	Employer	Self -employed	Unpaid family workers
without children	164 79.61	7 3.40	17 8.25	18 8.74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488 54.40	22 2.45	159 17.73	228 25.42
with children of school age	1154 50.24	67 2.92	424 18.46	652 28.38
total	1806 53.12	96 2.82	600 17.65	898 26.41

Figure IV-6 Employment Status of Female by Family Cycle

Unit: number of persons



2. Gender equity: Focusing on Time Allocation Data

Examining the result of time distribution of wage labor, non-wage labor, and leisure time between couples, gender equity among Korean families grade almost none.

1) Wage Labor

Considering married women working more than 35 hours a week as a base, women's wage labor hours are bit longer than men's by a narrow margin. Average wage labor hours of men sample analyzed are 376.3 minutes per day and women 387.3 minutes per day. Examine this through family life cycle, women's wage labor hours in group one hold 22.8 minutes longer than men, and in group three 26 minutes longer. Only in the group two, which have to maximize women's time strain because of taking care of children in preschool age, women's wage labor hours are shorter than men by 51.8 minutes. This results coincides with the neoclassical economic rational choice theory, which have argued that women to shorten wage labor time and lengthen housework and men to lengthen wage labor time to increase family income would be the rational choice for the family with children in extension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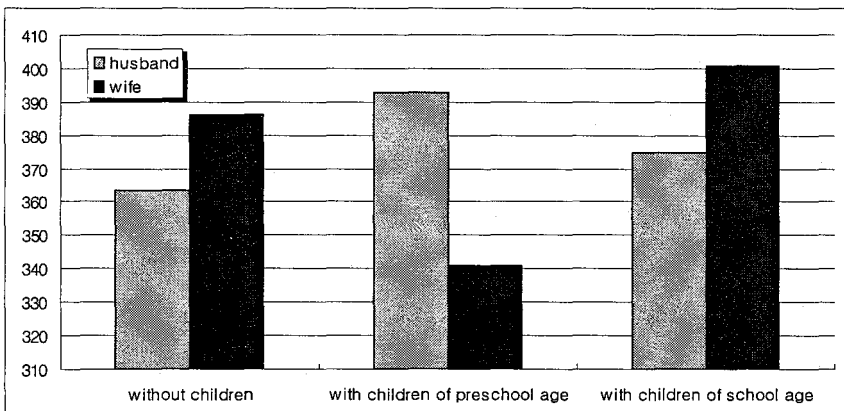
Table IV-7 Average 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family cycle	variable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without children	husband	206	363.5	266.2	0	890.0
	wife	206	386.3	213.7	0	830.0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husband	897	392.9	251.8	0	1040.0
	wife	897	341.1	206.6	0	1040.0
with children of school age	husband	2297	375.0	255.8	0	1010.0
	wife	2297	401.0	208.9	0	1020.0

Figure IV-7 Average 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2) Non-wage labor

As examined above and on condition of same wage labor hours between couples, the result of these couples use of non-wage labor hours shows dramatic changes. As expected in group two of which the activity related with family have maximized, non-wage labor hours of both men and women are little longer than other two groups. However, the hours of increment are extremely different by genders. In case of having no children or having children already grown up, men's participating time in housework are average of 23.2-23.4 minutes per day. Men's housework time increases very little in case of having preschool children but even that case, lengthen for only 17 minutes. However, on women's side, when having preschool children, women's housework hours increase to over 124 minutes.

Above mentioned non-wage labor working hours are the average of the samples thus, by examining the ratio of real actors we could understand the result of unequal time distribution between genders. For men who participate in non-wage labor in reality are only 1,517 persons, not more than 41.3% of whole. It has proven that other 58.7% of men are not doing the housework at all. Participation rate of men's activity increases just little only in group two of which having preschool children.

There are almost no changes in men's participation of housework following life cycle and thus, we can conclude that gender equity in family have not yet realiz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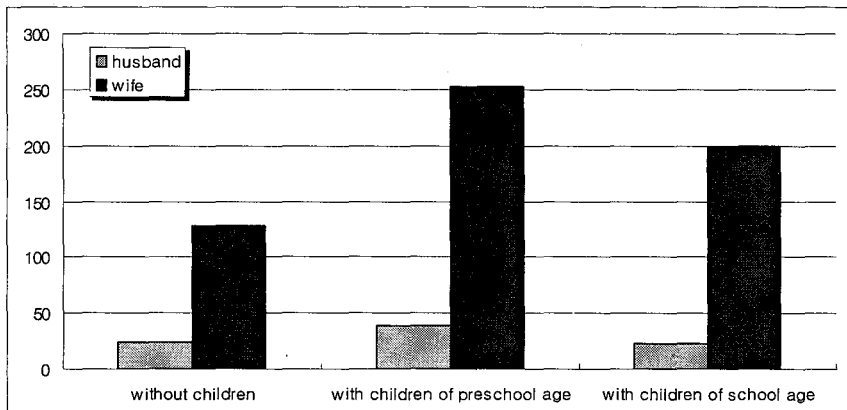
Table IV-8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family cycle	variable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without children	husband	206	23.4	48.4	0	290.0
	wife	206	128.0	101.4	0	660.0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husband	897	39.0	72.1	0	720.0
	wife	897	252.6	138.2	0	840.0
with children of school age	husband	2297	23.2	53.5	0	550.0
	wife	2297	199.2	113.1	0	720.0

Figure IV-8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Followings are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rate of non-wage labor hours between couples by family cycle in detail. Considering men's participation of housework, most changes are about 20 minutes of increase on 'family taking care labor' i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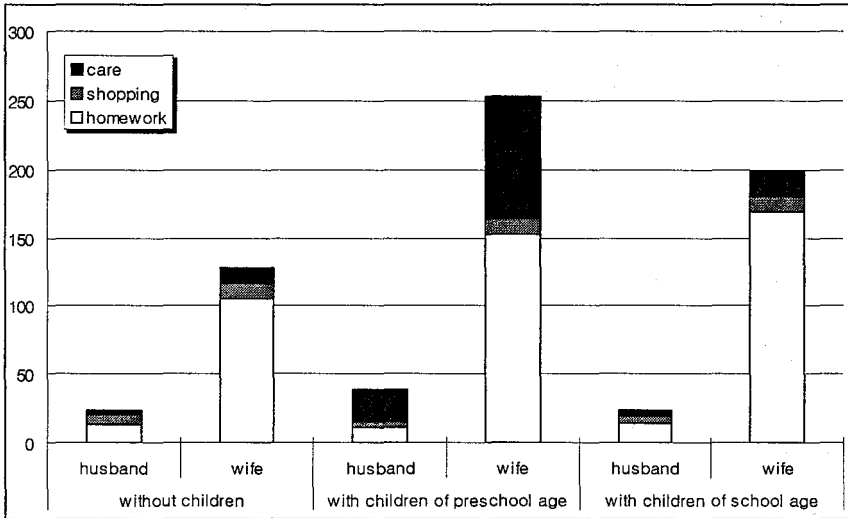
group two. 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having children in preschool age, women's 'family taking care labor' hours increased very high and as the children grow up, women's hours in participating 'housework' relatively increase.

Table IV-9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Detailed Items, per day)

Unit: Minute

family cycle	variable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without children	husb -and	homework	206	13.6	31.8	0	250.0
		shopping	206	6.8	22.9	0	170.0
		care	206	3.0	16.6	0	180.0
	wife	homework	206	105.2	79.8	0	430.0
		shopping	206	11.7	24.3	0	160.0
		care	206	11.0	40.2	0	440.0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husb -and	homework	897	11.2	35.2	0	640.0
		shopping	897	4.4	20.9	0	280.0
		care	897	23.5	51.3	0	490.0
	wife	homework	897	152.3	96.5	0	720.0
		shopping	897	11.7	21.6	0	190.0
		care	897	88.6	77.9	0	720.0
with children of school age	husb -and	homework	2297	14.1	38.2	0	510.0
		shopping	2297	5.8	26.0	0	470.0
		care	2297	3.3	20.2	0	540.0
	wife	homework	2297	168.5	97.8	0	710.0
		shopping	2297	11.4	22.6	0	230.0
		care	2297	19.2	34.4	0	400.0

Figure IV-9 Average Non-wage Labor Hours of Couples (Detailed Items, per day)



3) Leisure Time

If we examine the usage of mass media and leisure time among free time, men's leisure time is longer than women's time. Leisure time between men and women have not changed, thus only a small change between genders by family cycle was m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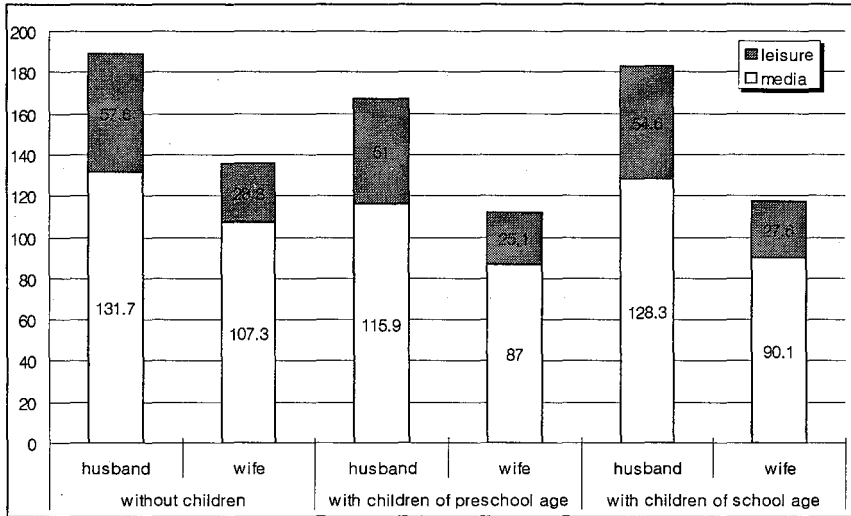
Table IV-10 Average Free Time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family cycle	variable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without children	husband media	206	131.7	124.9	0	620.0
	husband leisure	206	57.6	95.4	0	600.0
	wife media	206	107.3	91.1	0	520.0
	wife leisure	206	28.3	54.9	0	370.0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husband media	897	115.9	114.4	0	730.0
	husband leisure	897	51.0	83.0	0	790.0
	wife media	897	87.0	82.2	0	540.0
	wife leisure	897	25.1	45.6	0	350.0
with children of school age	husband media	2297	128.3	124.9	0	890.0
	husband leisure	2297	54.6	83.9	0	650.0
	wife media	2297	90.1	82.1	0	710.0
	wife leisure	2297	27.6	46.4	0	410.0

Figure IV-10 Average Free Time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4) Total Labor Hours

In every family cycle of couples, women's total labor hours aggregating wage labor time and non-wage labor time are far higher. In the families with no children, women worked 127 minutes more than men, in the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women worked 161 minutes more than men, and in the group having grown-up children, women worked 202 minutes more than men. In the age group of young 20s and even in the family having less housework due to children having grown-up, equal housework division was not yet realized between cou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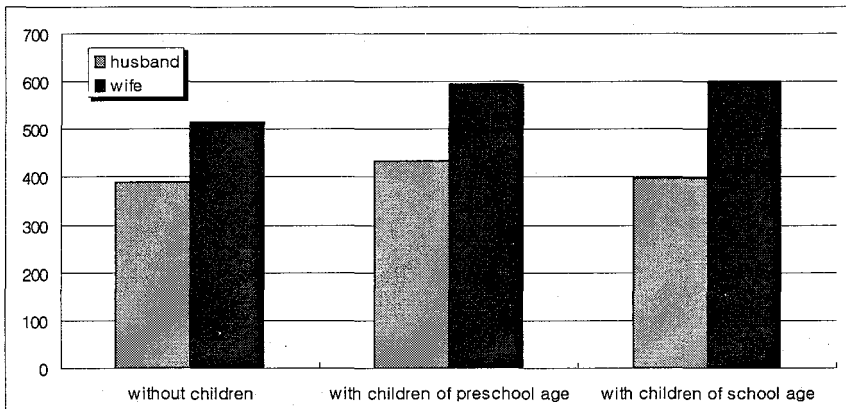
Table IV-11 Average Total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family cycle	variable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without children	husband	206	388.7	252.8	0	890.0
	wife	206	516.2	177.3	70	950.0
with children of preschool age	husband	897	432.8	243.1	0	1040.0
	wife	897	594.1	166.4	0	1070.0
with children of school age	husband	2297	398.6	249.7	0	1020.0
	wife	2297	600.8	164.9	0	1080.0

Figure IV-11 Average Total Labor Hours of Couples (per day)

Unit: Minute



Greenstein (1995) have analyzed 'gender equity ideology' as one of the factors influencing housework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He have divided individual ideology by 'traditional type' and 'equal type', divided the sample couples into four pairs and examined housework share in each type. As

a result, husband having or not having gender equity ideology was the main cause of making housework equally shared between couples. That is to say, the key problem in equal sharing of housework between couples was husband's attitudes thus, men's awareness on equal housework was the main thrust to uplift gender equity in the family. Specific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of housework hours between husband of full time housewives and husband of working wives in Korea, we can assume Korean society is rather far distanced from realizing equal share of housework between couples.

As examined above, if compatibility between women's work and family life is not supported by the society and not being supported by husband who should be partners of housework and child care, the possibility of women to choose the most defensive form of action, that is birth strike, would increase. Thus, single young women are considering the family as a process gaining after sacrifice of career discontinuation and recognize it as a place one has to accept so many struggles resulting from real marriage life which are far from fulfilling gender equity. As a result analysis of Torr & Short (2004) and Künzler (2002), which have addressed that the society with high gender equity or with fair division of housework between husband and wives reveals continuance of stable fertility level, above unequal structure within family life is one of main cause explaining lowest low fertility phenomena in Korea.

Gender Equity and Fertility

- | | |
|---|----|
|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 61 |
| 2. Analysis Result on Planning
to Second Birth | 65 |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ow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earches of other countries, I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and second birth in Korea. It is said that fertility in Korea marks the lowest in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for married couples, it is rather usual to have first birth, therefore to explain low fertility phenomena,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iod of women progressing to the second birth. Specifically, considering that the pivotal changing point of lowest-low-fertility in Korean society is the point of sharp fall from $TFR=2$ to nearly $TFR=1$, it is imperative to seize the cause affecting the second birth.

Therefore, I have examined married women with one child who plan to progress to second birth and the causes affecting that plan. I have sampled 516 persons who are planning to have second birth in age from twenty to thirty four, out of 867 married women with one child.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the samples are as in Table V-1. From the age distribution, 57.8% (298 persons) out of whole women fall into age group between thirty to thirty four. Almost half of the sample are high school graduates and 30% are with college degree. 84% of the samples are urban dwellers and women participating economic activity at present are 184 persons (35.7%). Among these 53% have houses of their one own or their family owned, 61.6% are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 two, and 26.2% are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 three. Among the first child, 53.7% are boy. And 69.8% (360 persons) who are having one

child at this moment, have said ideal number of children are two.

Table V-1 Characteristic of Women with Only One Child

	frequency	%
Birth Cohort		
20-24	33	6.40
25-29	185	35.85
30-34	298	57.75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 under	9	1.74
high school	228	44.19
junior college	122	23.64
college & over	157	30.43
Area		
urban	435	84.30
rural	55	10.66
Occupation of Wife		
no occupation	332	64.34
managerial workers	68	13.18
clerical & related workers	51	9.88
sales & service workers	44	8.53
agri., forestry workers	1	0.19
produc. worker, transport	20	3.88
equip. operator, laborers		

Table V-1 continued

	frequency	%
Occupation of husband		
no occupation	34	6.59
managerial workers	148	28.68
clerical & related workers	106	20.54
sales & service workers	104	20.16
agri., forestry workers	3	0.58
produc. worker, transport equip. operator, laborers	121	23.45
Employment Status of Wife		
self-employed, employer	14	2.71
unpaid family workers	18	3.49
regular employees	103	19.96
temporary/daily employees	49	9.50
economically non-active	332	64.34
Employment Status of Husband		
self-employed, employer	107	20.74
unpaid family workers	2	0.39
regular employees	326	63.18
temporary/daily employees	47	9.11
economically non-active	34	6.59
Home Ownership		
houseless	241	46.71
one's own house	275	53.29
Average Monthly Gross Income of Household		
-1760 thousand won	140	27.13
1760-2340	121	23.45
2350-2920	65	12.60
2930-4390	117	22.67
4400 thousand won & over	73	14.15
Employed and Unemployed		
unemployed	332	64.34
employed	184	35.66
Sex of 1st Children		
son	277	53.68
daughter	239	46.32

Table V-1 continued

	frequency	%
year of first marriage		
2000-2004	336	65.12
1995-1999	161	31.20
1990-1994	18	3.49
1985-1989	1	0.19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trongly agree	37	7.44
agree	185	37.22
disagree	184	37.02
strongly disagree	91	18.31
Division of Household Affairs		
only wife	124	25.83
mostly wife	237	49.38
fairly shared	117	24.38
mostly husband	2	0.42
Division of Child Care		
only wife	62	13.54
mostly wife	221	48.25
fairly shared	172	37.55
mostly husband	2	0.44
only husband	1	0.22
Child 0-2 Age		
haven't	198	38.37
have	318	61.63
Child 2-7 Age		
haven't	381	73.84
have	135	26.16
Ideal Number of Children		
two children	360	69.77
etc.	156	30.23

2. Analysis Result on Planning to Second Birth

This is the result of a logit analysis which asked women of age group from 20 to 34 with one child at present moment whether she is planning to have second birth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decision. The result is as shown in Table V-2. Among 516 samples, women planning to have second birth are 54.7%, and others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no intention to have second birth.

As a result, main causes affecting second birth decision seemed to be family planning on family cycle, such as controlling age gaps between first and second child, composing children genders as they wish etc. Women with children age under two were more prone to progress to second birth than women with children age over two. That is, women with children age under two seems to control age gaps between first and second child and shortening child rearing period by advancing second birth.

In 90% significant level, the more total numbers of the family there are the more women are prone to have second birth. As shown in the result, we can conclude that family members seem recognized as important supporters of family caring labour specially when maximized due to additional birth.

And in 90% of significant level, there are more negative effect when first children are boy than girl. From this, although faintly, we can observe male preference among young couples age under 34. About two third of samples have claimed that ideal number of

children as two, and on this condition, women who have wanted two children considering their sexes were more prone to have second birth. Therefore it seems that most of women with first girl child and who have said that ideal number of children as two are planning to have second birth.

The result showed that women'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re not of significance in second birth decision. Regardless of women's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level, women's occupational status or place of living, women who planned to have second birth are influenced by sex and age of their first child, family cycle presented from mother's age, and ideal composition of children. As confirmed in the analysis, it showed that having household member over age 65, husband's occupation and form of employment, and wife's occupation did not matter in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Specifically, the gender equity variable within the family which this chapter focuses also seems not to be significant in women's or couples' plan to have second birth.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is measured by two variables; one is 'husband's housework hours (general housework labor + family caring labor)' and another is 'subjective evaluation on equal sharing of housework within family'. As a result, there was no change in women's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regardless of the husband's housework labor hours and of how equal women perceived housework sharing was.

Table V-2 Logit Analysis for Second Birth Plan - Total-

	total	
	coefficient	standard error
intercept	-1.628	0.659
Birth Cohort		
20-24	0.498	0.445
25-29	0.520 *	0.223
30-34	(reference set)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 under	-0.943	0.897
high school	(준거범주)	
junior college	-0.000	0.249
college & over	-0.102	0.252
Area		
urban	-0.184	0.269
rural	(reference set)	
Employment Status of Wife		
self-employed, employer	0.563	0.608
unpaid family workers	0.372	0.532
regular employees	(reference set)	
temporary/daily employees	-0.112	0.369
Average Monthly Gross Income of Household		
-1760 thousand won	(reference set)	
1760-2340	0.191	0.278
2350-2920	0.231	0.334
2930-4390	0.970	0.290
4400 thousand won & over	0.086	0.354
Child 0-2 Age		
haven't	(reference set)	
have	0.739 *	0.301
Child 2-7 Age		
haven't	(reference set)	
have	0.044	0.313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263 #	0.140
Number of Sons	-0.312 #	0.187
Household Labor Time of Husband	8.73E-6	0.000
Equity of Gender	0.112	0.210

Table V-2 Continued

	total	
	coefficient	standard error
Ideal Number of Children		
two children	0.344	0.212
etc.	(reference set)	
Gender Division of Children		
no	(reference set)	
yes	0.595 **	0.229
-2 Log L	631.015***	
d.f.	21	

Not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If this is so, would women's economic activity influence the decision to have second child? Through comparing group averages, there was not much significant difference in second birth decision between the working women group and the housewives group. 55.2% of the working women and 54.5% of full time housewives women planned to have second birth and group averages have shown no difference in 99% significant level.

However, when divided into two groups by women'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each group showed distinctive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First of all, the logit analysis on working women's plan to have second birth is shown in Table V-3. From the result, similar to the trend of the entire sample, working women from age 24 to 29 are more prone to have second birth than women younger than age 24 or over age 29.

Aside from the whole sample, in the case of working wome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ave influenced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In the case of second birth, women with more household members which might be expected to reduce women's dual burden between work and child caring showed positive effects whereas high income showed negative effects. And with increase in husband's housework hours, women's intention to have second child also increased.

In the case of working women deciding to have second birth, considerations such as, sex of first child or age gaps between first and second child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And there was no evidence proving women's average working hours affected progressing to second birth.

From these analyses, we can conclude that in the case of married working women, factors deciding whether or not to continue her work is average income. Two strategies of these women to choose when to avoid career discontinuation by second birth are as follows: 1) to give up having second child, and 2) to draw a plan to reduce the burdens of child caring and housework. As two thirds of the sample indicated that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are two, I have labeled the first strategy as 'birth strike'. For the second strategy, women are seeking helper to take care the family and increase of housework share by the husband, however small it might be.

In general, we would have expected that increase of women's income would have positive influence in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because high income would make available none-wage labor market resources. However, it seems that additional child birth are negatively recognized in women's high income economic activity.

As shown in previous Western analyses,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effects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among the working women group, at least. That is to say, married working women's excessive dual-burden have forced women to choose one between 'continuance of economic activity', or 'have children'. And factors more effective in mediating between these two are rather 'gender equity between couples within family', such as husband's housework hours than 'available resources', such as household income or women's income.

Table V-3 Logit Analysis for Second Birth Plan - Married Working Woman-

	working woman	
	coefficient	standard error
intercept	-1.666	1.214
Birth Cohort		
20-24	-0.201	0.851
25-29	0.860 #	0.455
30-34	(reference set)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 under	-14.495	597.0
high school	(reference set)	
junior college	-0.253	0.479
college & over	-0.387	0.440
Area		
urban	0.154	0.492
rural	(reference set)	
Average Labour Hour of Woman	0.005	0.013
Average Monthly Wage of Woman	-0.002 *	0.001
Child 0-2 Age		
haven't	(reference set)	
have	0.038	0.553
Child 2-7 Age		
haven't	(reference set)	
have	-0.530	0.546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429 #	0.226
Number of Sons	-0.293	0.351
Household Labor Time of Husband	0.001 #	0.000
Equity of Gender	0.092	0.390
Ideal Number of Children		
two children	0.230	0.392
etc.	(reference set)	
Gender Division of Children		
no	(reference set)	
yes	0.656	0.432
-2 Log L	197.398*	
d.f.	16	

Not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V-4 is the result of logit analysis of full time housewives when planning to have second child. From the result, this group of full time housewives have shown almost homogeneous characteristic. For these women, most considerable factors when deciding to have second birth are two; whether she has a child under age two, or whether she already had her child sex as wanted. Therefore, this group of women are tended to plan their second birth within family planning life cycle, thus converging their child caring period.

Table V-4 Logit Analysis for Second Birth Plan -Housewife-

	Housewife	
	coefficient	standard error
intercept	-1.224	0.850
Birth Cohort		
20-24	0.418	0.541
25-29	0.287	0.284
30-34	(reference set)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 under	0.216	1.141
high school	(reference set)	
junior college	0.123	0.308
college & over	0.359	0.335
Area		
urban	-0.180	0.352
rural	(reference set)	
Average Monthly Gross Income of Household		
-1760 thousand won	(reference set)	
1760-2340	0.224	0.321
2350-2920	0.326	0.407
2930-4390	0.390	0.384
4400 thousand won & over	-0.366	0.551
Child 0-2 Age		
haven't	(reference set)	
have	1.183 **	0.396
Child 2-7 Age		
haven't	(reference set)	
have	0.353	0.421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035	0.198
Number of Sons	-0.380	0.242
Household Labor Time of Husband	-0.000	0.000
Equity of Gender	0.123	0.274
Ideal Number of Children		
two children	0.404	0.278
etc.	(reference set)	
Gender Division of Children		
no	(reference set)	
yes	0.477 #	0.290
-2 Log L	386.694*	
d.f.	18	

Not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As mentioned above, the 'gender equity between couples' factor in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is of significant only with married working women group. In the case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more husband share the housework, the more women are prone to have second birth. However, in the case of full time housewives, the gender equity level, such as husband's housework share are not of significant factor in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Whil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 of women who already had second birth (this data were included in "2005 National Survey on the trend of marriage and divorce"), it has proven that women who have worked between first birth and second birth were only 9.5%. Given the facts that 'gender equity between couples' have not influenced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and 90.5% of women who already experienced second birth were in state of unemployment, it can be said that gender division in family is still an influential "social norm" in Korea. In the process of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in a society where the majority of people consider two children as an ideal numbers of children, women plans to have and raise children through career discontinuity and returning to work after finishing with the child care. Other women who had not accepted this norm of gender division or career discontinuity, response with marriage postponement or give up marriage. Accordingly, the major group causing lowest low fertility phenomena in Korea are single women who hesitate to proceed into marriage relationship and the fertility

level within the family is rather stable with norms of gender division. However, if strict norms of gender division are banning single women to choose 'marriage' as alternative life procedure, then it would lead to an increase of single groups in this society and would func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ntinuing fertility phenomena. Moreover, given the fact confirmed in the case of married working women that the level of gender equity have affects the decision to have second birth, realizing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would mitigate low fertility phenomena not only from single women but also from married women.

This can be confirmed from the result of the '2003 National Family Survey'. In the survey, among 1,387 singles (714 men, 673 women), only 52.3% have answered 'yes' to the questions asking whether they have any plan to get marry in near future (Jang et al, 2003). Given that 55.5% of the single men and 49% of the single women have said yes, we can conclude that 50% of the singles group have no plan or are uncertain about getting married. The singles group as a whole clearly shows tendencies to delay their marriage or avoid the question altogether as the marriage rate decreases and the age of marriage increases. Moreover, it is noteworthy to pay attention to sex difference in the singles group. More single women had negative or passive attitude toward marriage.

Fig. V-1 shows the people who have planned to get marry by sex and employment. In the case of men, there has been numerous observations that they consider employment as the prerequisite to

marriage (Eun 1995). Recently, such a norm is also widely accepted by single women. In the case of men, 17.5% of the employed and 41.9% of the unemployed said they have no plan whereas 23.5% of the employed women and 38.7% of the unemployed women said the same. In other words, almost half of the unemployed men had no plan to get marry indicating that economical situations like employment effects the decision to get marry and form a family. Interestingly, among the unemployed single women 38.7% had no plan to get marry. Unlike the argument that due to the increase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single women with a high degree of economic independence have delayed getting married or have no plan at all, the unemployed women have a higher percentage of having no plan to get marry indicating that employment is no longer a choice but a matter of course and they prefer to choice employment over marri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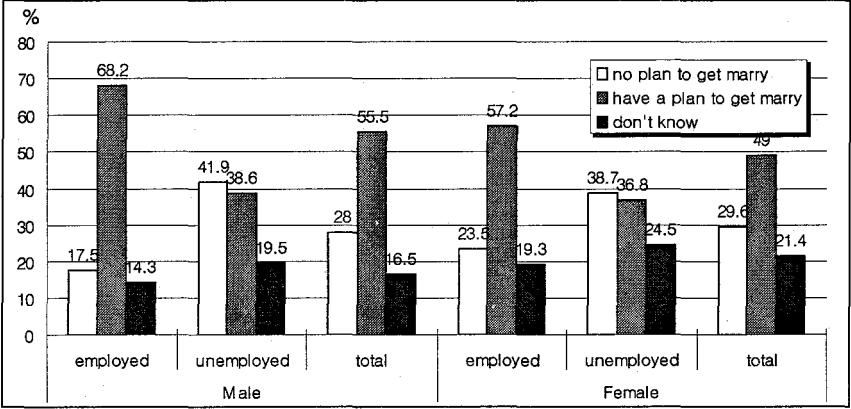
Furthermore, as 23.5% of the employed women said they have no plan to get marry we can assume that women delay or avoid getting married which is expected to bring interruption in women's career.

The attitudes of women and men towards marriage planning is shown to be consistent in the responses on whether they have a plan to get marry or not. Table V-5 shows that among the reasons for single women to not plan to get marry "I don't think I must get marry (31%)" got the highest percentage followed by "I am more devoted to my work." In other words, the existing models of marriage, family, and couple are no longer attractive

to the singles today. Not only that, the fact that women devote themselves to work more to build up their career and delay or avoid marriage because there is a belief that marriage equals interruption of career is reconfirmed. Similarly, single men as another victims of the gender role norms picked "Lack of economic conditions for marriage (41%), and "To devote more to my work (18.5%) as their reasons for not planning to get marry.

As shown above, today's patriarchal family system that drives women to chose between work and family and men to solely bear the role of household bread-earner is contributing to a phenomenon where individuals consider marriage and family as one of many alternative stages in their life process.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is very strict on recognizing childbirth only within marriage young people's tendency to delay or avoid marriage can only lead to extreme low fertility.

Figure V-1 Marriage Plan according to sex and employment



Sourc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3, 'National Family Survey & Korean Family Report'.

Table V-5 Reasons for Single with No Plan to Get Marry by Sex, Age, Employed/Unemployed

Unit: Number of Persons(%)

	don't think must get married	not to be restricted from his/her mate	more devoted to my work	responsibility and duty owing to marriage	marriage institution is disadvantage to woman	Lack of economic conditions for marriage	don't look for a ideal mate	still young	no reply
s male	34 (17.0)	9 (4.5)	37 (18.5)	11 (5.5)	1 (0.5)	82 (41.0)	18 (9.0)	7 (0.5)	1 (0.5)
x female	63 (31.7)	16 (8.0)	56 (28.1)	5 (2.5)	7 (3.5)	38 (19.1)	11 (5.5)	2 (1.0)	1 (0.5)
a 10's	9 (27.3)	3 (9.1)	9 (27.3)	1 (3.0)	0 (0.0)	9 (27.3)	2 (6.1)	0 (0.0)	0 (0.0)
e 20's	64 (31.7)	15 (4.9)	76 (24.6)	10 (3.2)	7 (2.3)	102 (33.0)	25 (8.1)	8 (8.1)	1 (0.3)
30's	15 (36.6)	3 (7.3)	7 (17.1)	3 (7.3)	1 (2.4)	9 (22.2)	2 (4.9)	0 (0.0)	1 (2.4)
40's	6 (66.7)	1 (11.1)	1 (11.1)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50's	1 (25.0)	2 (5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60's & over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e emplo	55 (33.1)	11 (6.6)	38 (22.9)	10 (6.0)	3 (1.8)	42 (25.3)	3 (1.8)	2 (1.2)	2 (1.2)
m yed									
p unem									
l yed									
o	42 (18.0)	14 (6.0)	55 (23.6)	6 (2.6)	5 (2.1)	78 (33.5)	26 (11.2)	7 (3.0)	0 (0.0)
y									
e									
d									
total	97 (24.3)	25 (66.3)	93 (23.3)	16 (4.0)	8 (2.0)	120 (30.1)	29 (7.3)	9 (2.3)	2 (0.5)

Sourc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3, 'National Family Survey & Korean Family Report'.

Conclusion

It seems the acceptance of low fertility is a worldwide trend. A child is considered a cost and at the same time "a precious being which cannot be valued." Such a dualistic attitude is one of the factors used to explain today's low fertility phenomena. The reason why the issue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becomes a problem is that the causes of low fertility is very complex. Among many possible causes, this study focused on the one as a history of the whole society being indifferent to care-taking work which is indispensable for the healthy reproduction of a society as a whole. The total responsibility to carry out the cycle of caretaking work where people give birth to children and raise children so the children grow up to reproduce and takes care of the elderly generation is burdened to individual families and then women within the family. But the fact that market labor is considered to be superior economically and normatively has driven women into a deep dilemma.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ideal image of family as a family with two kids and the family strategy taken in reality.

From such a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ed to show that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ity in care-taking is a fundamental solution in overcoming low fertility phenomena in Korean society. The experience of the West who had to deal with the crisis of low fertility before us shows us that when the level of gender equity of society as a whole does not match the level of gender equity in the family there is a drastic decrease of the fertility rate through the society. Such an experience is not an

exception to Korean society.

Behind the increase of singles who are the primary group responsible for extreme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and the age of marriage there exist the negative effects of patriarchal family which forces women to accept interruption of career. No woman will easily decide to get marry when she knows it is the women who are completely responsible for housework and care-taking work after marriage while emphases on individual citizenship and labor rights are expanding. The housework sharing among Korean couples according to life cycle examined through the data from daily time use survey showed a structure of extreme inequality. Unless such patriarchal family life is not changed the trend of young women who are more concerned with building up their career delaying or avoiding marriage will continue to accelerate.

Moreover,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working married women also consider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o have children. Women's labor power is increasingly sit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expected labor shortage from the continuation of low fertility, however, unless the patriarchal gender work division is eliminated a vicious cycle of extreme low fertility continuing to exist which will further the need for women's labor. For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is equally important and fundamental solution that confront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as

the expansion of social childcare system. In this sense, the crisis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can provide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n society to reinstate the long deserved importance of care-taking work.

Reference

Korean Publications

- Choi Gyeong-su, 2003, Prospect and Analysis of Aging Population Structur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Economic Planning Agency Bureau of Survey and Statistics, 1997, 1974 Fertility Rate Survey, Seoul: Economic Planning Agency.
- Eun, Ki-soo, 1995, "Age norms and sequence norms in getting married", Korean Population Studies 18.1: 89-117.
- Gong Se-gwon, et. al., 1992, The Formation of the Family and Childbrith Behavior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ion of Health and Society.
- Jang, Hye-gyeong et als., 2003, National Family Survey and Report on Korean Family,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Lee, Jae-gyeong, Jo, Young-mi, Lee, Eun-ah, Yu, Jeong-mi, 2005, Gender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Policy Alternatives, Seoul: Committee on Aging and Future Society.

English Publications

- Angrist, J. & W. N. Evans, 1998,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450-477.
-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6.

Chesnais, J.-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Cramer, J.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78-190.

DeGraff, D. S. & R. Anker, 1999, "Gender, labour markets, and women's work", Liè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Donahoe, D. A., 1999, "Measuring women's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 543-574.

Engelhardt H., T. Kögel, & 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i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vol. 58, no. 1, pp. 109-120.

Folbre, N., 1997, "The Future of the elephant-bir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647-654.

Greenstein, T. N., 1995, "Ar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ly di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chil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6: 149-169.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Klerman, J. A. & A. Leibowitz, 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36: 377-385.

Künzler, J., 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hrer, E. & M. Nerlove, 1986,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81-204.
- Lloyd, C. B., 1991,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fertility surveys to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ert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22(May/June): 144-161.
- Mason, K. O. & V. T. Palan, 1981,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in Peninsular Malaysia: the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hypothesis reconsidered", *Demography* 37: 523-33.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0.
- Morgan, S. 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589-603.
- Perry-Jenkins, Maureen, Rena L. Repetti, & Ann C. Crouter, 2000, "Work and famil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81-998.
- Rindfuss, R. R. & K. L. Brewster,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258-289.
- Sleebo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Torr, B. M. & S. E. Short,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Van Esterik, P. & T. Greiner, 1981, "Breastfeeding and women's work: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 184-19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4-03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생애주기별 접근-

발행일 2005년 12월 28일 인쇄
발행일 200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서명선
발행처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 3156-7000(代)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